

그룬트비의 경제사상: 그 발전과정과 배경*

The development and backgrounds of Economic thoughts of N.F.S. Grundtvig

이명현 (Myungheon LEE)**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Grundtvig's economic thoughts focusing on his two important works. In "Mands Minde", Grundtvig found the engine of British economic prosperity in "work based on the pursuit of economic interest" and "freedom". His economic ideas were deepened and systematized in "The Danes," in which he emphasized "protection of ownership" and "freedom of business", proposing a set of concrete liberal economic policies. Nevertheless, he presented a vision of a society in which the middle class constituted the majority, for the realization of which he urged his country to set limits on the exercise of ownership by landowners concerning the level of rent, lease period, and the choice of the buyer. Among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his thinking were the tense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situation of the constitution-building process and the First Schleswig War, as well as the intensified class conflict in the countryside. On the other hand, it is worth noting that an ideal of collective land ownership underlies the argument for restrictions on the private land property, and that he also emphasized enlightenment to make economic agents recognize and pursue the common good in addition to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economy.

Key words: Grundtvig, economic sytem, freedom, property rights, peasant farmers

* 2023년 5월 12일 접수, 6월 12일 최종 수정, 6월 12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1년 인천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세 분 논문심사자들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린다.

** 인천대학교 경제학과(Incheo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교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moseslee65@gmail.com

I. 서론

덴마크는 작은 나라이지만, 1인당 GDP, 사회복지 수준, 혁신적 경제활동, 국민들의 행복도(幸福度) 등이 모두 높아서¹ 모범적 국가로 손꼽힌다². 덴마크가 이러한 성취를 이루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였는데 그중 19세기의 기독교 사상가인 그룬트비(N.F.S. Grundtvig, 1783~1872)의 활동 및 그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그룬트비주의자(Grundtvigian)의 기여가 중요하다고 인정된다. 즉 민주적 정치체제와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가 형성되는 19세기에 그가 제시한 사상과 그룬트비주의자들의 실천을 통해서 덴마크 사회가 높은 통합성을 갖게 되었고, 독립성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청소년들을 키울 수 있는 학교 제도를 갖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Jespersen, 2004: 110-112). 또한 그의 이상에 영향을 받은 ‘국민대학(Folk High School)’에서 교육을 받은 농민들이 덴마크 농업과 덴마크 사회 전체의 특징이 되는 협동조합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Jespersen, 2004: 153).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의 사상은 덴마크는 물론 국제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예컨대, Allchin et al. 1994: 2000).

그룬트비는 신학, 문학, 역사, 정치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근현대 덴마크의 정신사에 깊은 영향을 남긴 인물이다³. 목사로서 목회 활동은 물론 교회와 신앙의 자유에 관하여 깊은 사유를 전개하였다. 고대언어문학자로서 북유럽 신화를 덴마크어로 번역하여 보급하였고, 덴마크의 언어유산을 연구하고, 교회 회중과 더 나아가 전 국민이 부를 수 있는 수많은 찬송시를 썼다. 역사가로서 세계사를 자신의 독특한 시각으로 해석하면서 그 가운데 덴마크의 특수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강연과 저서를 통해서 대중에 확산시켰다. 특히 당시 고전어와 형식적 지식 전수 중심의 학교 교육을 비판하면서 모국어와 실생활에 기반한 진정한 인간, 건강한 덴마크인 양성을 위한 ‘삶을 위한 학교’ 사상을 설파하여 후대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이상 분야에 대한 대표저작으로 Grundtvig, 1808, 1827, 1832, 1837, 1838a, 1838b, 1845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1848년 덴마크가 의회민주주의로 이행한 후에는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현실정치에도 참여하면서 당대의 정치와 경제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 논문은 그룬트비가 영향을 미친 방대한 영역 중에서 경제사상을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경제체제의 중심이 되는 경제활동 자유, 소유권, 그리고 중요한 생산요소인 토지의 분배와

1) 2023년 IMF 보고에 따르면 덴마크는 1인당 GDP 68,830달러이고(www.imf.org), EU 혁신 상황판(innovation scorebord)에서 혁신 선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022년도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순위에서 2위였다.

2) 오연호(2014)는 바람직한 사회경제 모델로서 덴마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중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증폭시키기도 하였다.

3) 그는 방대한 저작을 남겼으며 그 대부분을 <http://www.xn--grundtvigsvrker-7lb.dk/>에서 볼 수 있다.

소유에 대해서 그의 사고(思考)가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지, 그러한 사고가 기독교적 사상 및 그의 인문사상 중 핵심인 ‘계몽’과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그룬트비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주로 그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예컨대 김기환, 2020, 정해진, 2015). 최근의 대표적 연구인 김기환(2020)은 다른 교육사상가들과 함께 교육사상이 가진 사회적 함의와 가치 그리고 방법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 단, 송순재(2020)는 기독교와 민족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그룬트비와 함석헌의 사상을 비교하고 있다.

덴마크와 그 밖의 외국에서도 그룬트비에 대한 연구는 그의 인문적 계몽과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제사상에 대해서도 일부 연구가 이루어졌다. Wählin (1989)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룬트비 경제사상에 대한 연구 중 가장 상세하고 근본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룬트비 시대에 사상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경제사상들을 정리하고 19세기 덴마크의 계급과 경제적 조건의 맥락 속에서 그룬트비 경제사상의 요소들을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그룬트비가 경제활동을 인간론, 사회론의 틀 속에 어떻게 위치 짓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소유권, 계급, 빈곤대책,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Wählin(1994)은 그룬트비 시대에 최대의 정치적 문제였던 쉘레스비히-홀슈타인 분쟁의 맥락 속에서 그룬트비의 정치사상을 설명하면서 그의 경제사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보다 폭 넓은 연구 주제를 잘 보여주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성으로 Hall et al.(2015)를 들 수 있다. 여기에 실린 논문들은 민족 형성(Nation Building)이라는 정치학적, 역사학적 개념의 틀로 덴마크가 근대민족국가로 형성되는 과정에 그룬트비와 그룬트비주의자들이 끼친 영향들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 이 중 Vind(2015)는 그룬트비와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는 영국의 자유주의 사상의 관계를 밝히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Broadbridge and Korsgaard(2019)는 그룬트비의 저작 중 정치, 사회, 경제문제에 대한 논설들을 선택하여 영역(英譯)한 문집으로 주제별로 그룬트비 문헌과 사상에 대한 개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덴마크 연구자들의 성과에 기초하여 그룬트비가 남긴 원전들을 좀 더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그의 경제사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려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이 그룬트비의 저작 중 경제사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지목하는 두 개의 저작, 즉 “삶의 기억”(1838) 중 영국에 대한 언급들과 “덴마크인”(1848, 1849, 1850) 중 경제문제에 대한 논설들 사이에 어떤 변화 혹은 발전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 두 문헌들에 나타난 그룬트비의 경제문제 대한 견해들을 주제별로 제시함으로써 그룬트비의 경제문제에 대한 사고를 하나의 체계로 재구성하려고 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두 문헌을 비교해 보면 전자에 비해서 후자에서 그룬트비의 경제문제에 대한 사고가 훨씬 체계화,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두 문헌 각각을 검토하고 그사이에 보이는 차이점이 무

엇인지를 찾고, 그 변화의 원인에 대해 가설적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같은 검토를 통해서 그룬트비의 경제사상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발전해 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발전에 개인적 체험, 구체적 시대 상황, 그리고 그의 역사 인식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룬트비의 인문적, 교육적 사상의 핵심인 ‘계몽’(Oplysning)이 경제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그룬트비 경제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그의 경제사상에 아담스미스로 대표되는 경제적 자유주의 사상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그러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룬트비가 가지는 차별점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반면 그가 평생에 걸쳐 구축한 사상체제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몽’의 개념이 그의 경제문제에 대한 사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브로드브릿지와 코스가르드(Broadbridge and Korsgaard, 2019; 288)의 간략한 언급 외에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그룬트비가 바람직한 덴마크의 경제체제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 특히 자영농민이 공동선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헌신의 자세를 갖도록 ‘계몽’하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살핌으로써 그의 사상체제 전반과 경제역역에 대한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로 그룬트비가 덴마크의 바람직한 경제체제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자영농민(自營農民) 육성을 위해서 제시한 구체적 정책의 내용과 그 사상적 배경을 보다 상세히 살피고자 한다. “덴마크인”에서 그가 밝힌 자영농민 육성 강조에 대해서는 이미 볼린(Wahlin, 1989; 279-281)과 브로드브릿지와 코스가르드(Broadbridge and Korsgaard, 2019; 287-288)가 주목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실현을 위해서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정책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그 바탕에 어떤 사상적,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이를 작은 범위에서나마 보충하고자 한다. 즉, 자영농민 육성을 위해서 그가 제안했던 정책의 핵심이 토지 관련 소유권 행사에 대한 규제였음을 보이고, 그러한 정책이 사상적으로는 일종의 토지공유개념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었고, 역사적으로는 덴마크가 성취한 농업개혁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그룬트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정치적, 경제적 과제를 안고 있었는지를 살핀(2장) 후에 그의 경제사상이 잘 드러나 있는 문헌의 내용을 저작 순서대로 검토함으로써 그의 경제사상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먼저 1831년 발표된 ‘덴마크와 홀스타인에 관한 정치적 고찰’이라는 논설 속에서 그룬트비가 자본주의적 공장제도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덴마크의 농업개혁의 성과를 중시하고 있었음을 볼 것이다(3장). 다음으로는 1838년에 행한 강연 시리즈 ‘삶의 기억(Mands Minde)’ 중 특히 영국에 관한 강연들을 통해

서 그가 영국에서 보았던 이익 추구에 입각한 경제활동과 시민적 자유를 번영의 기초로 찬양하는 입장이었으면서, 동시에 영국의 경제 및 정치체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 즉 자본주의적 공장 체제가 초래하는 비인간화, 빈부격차 확대, 그리고 토지 독점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것이다(4장). 그리고 1848년부터 1851년까지 발행했던 주간지 ‘덴마크인(Danskeren)’에 실었던 논설들을 통해서 그의 사상 중 자유주의적 경향이 어떻게 보다 명료해졌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자영농민 육성을 핵심적 과제로 설정했는지, 이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였는지, 그리고 그 제안의 사상적 배경은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5장).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앞에서 제시한 이 논문의 세 가지 관심사에 대한 답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그 현재적 의미를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6장).

II. 시대적 배경과 그룬트비의 기여

그룬트비가 살았던 19세기에 덴마크에서는 이른바 이중혁명(二重革命), 즉 정치체제면에서 절대왕정으로부터 의회민주주의로의 전환 그리고 경제면에서는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Jespersen, 2004; 140-143). 덴마크의 특징은 그러한 과정이 국토상당 부분의 상실로 인해서 중규모의 다민족-다언어 국가에서 동질성이 높은 소국(小國)으로 바뀌는 변화와 중첩되었다는 점이다.

정치적 전환은 1848년, 프랑스의 2월 혁명으로 촉발된 코펜하겐 자유주의자들의 시위로 의회가 성립되고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일어났다. 그 이전의 절대주의 시기에도 덴마크의 왕정은 국민과의 계약적 성격이 강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1831년에 이미 지방자문회의(Rådgivende Provinsialstænder (Stænderforsamlinger))가 구성되어 국민들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고 있었다. 1848년 혁명으로 입헌군주제로 전환되고 나서 정치무대에서는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대립하였고 후에 자영농민 계층도 중요한 정치세력이 되었다. 이들은 의회권력과 왕권의 관계, 선거권의 확대, 쉘레스비히-홀스타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경제적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룬트비 생전에 산업사회로 본격적 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⁴ 18세기말에서 시작된 농업개혁(agrarian reform)을 통해서 중세적, 절대주의적 농업구조가 근대적 자영농 체제로 전환되었다. 농업개혁이 시작되기 전 덴마크 농업은 왕실을 포함한 귀족 장원주들(Herremand)이 대부분의 국토의 대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차지농(借地農)(tenants)들이 실

4) 덴마크에 산업화가 시작된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1870년대 이후라는 데에는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Lampe and Sharp, 2018: 210-214)

제 경작을 대부분 담당하는 구조였다. 장원주들은 차지농에 대해서 사법권, 체벌권, 징세권, 청년들의 거소(居所) 지정하는 권리(adscription) 등 경제외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 기반하여 차지농들을 장원에서 일정한 시간 강제로 노역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경작지는 분산착포제(分散錯圃制) 및 삼포제로 경영되고 있었고 새로운 농업기술(운재식(輪裁式)농업)이 도입되면서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선진적 지주들과 농업생산력 증대를 통해서 국가재정 확충을 기하고자 했던 국가 및 관료지식인들의 이해관계가 부합하여 위로부터의 개혁으로서 덴마크의 농업개혁이 추진되었다. 이 개혁은 경제외적 강제 및 봉건적 부담의 철폐, 안정적 법적 지위를 가진 차지농 및 자영농의 창출, 경영단위로의 농지통합, 분산착포제의 극복과 균등한 규모를 가진 농장의 창출, 취락구조의 개편, 차지농의 강제노동이 아니라 임금노동에 입각한 장원주 대농장의 출현, 근대적 윤작체계 도입 등 종합적인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결국 이를 통해서 균질적인 자영농 중심의 농업구조가 출현하였고 그 결과 19세 말부터 덴마크가 농업선진국으로 올라서는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 덴마크의 사회통합 정도가 높아져서 복지국가의 사회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⁵.

이처럼 중대한 정치, 경제적 변화를 겪는 시기에 덴마크는 영토와 인구 면에서 소국으로 축소된다. 중세에 지금의 덴마크, 영국 일부,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북부(슐레스비히-홀스타인)에 걸쳐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덴마크 왕국은 18세기 말에는 이미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북부로 축소되어 있었는데,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면서 1814년에 노르웨이를 상실했고, 다시 1864년에는 슐레스비히-홀스타인을 대(對) 프러시아 및 오스트리아 전쟁(2차 슐레스비히 전쟁)을 통해 상실하였다. 이 과정은 국세(國勢)를 크게 축소시켰지만, 다른 한편 ‘덴마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사고와 논의가 전개되게 하였고 이를 통해서 근대적 국민국가의 문화적, 사상적 틀이 형성되었다. 즉, 덴마크가 복합민족-복합언어를 지닌 중규모 국가에서 단일민족-단일언어를 가진 소규모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Østergård, 2015: 특히 127-128).

이처럼 근대국가로서 덴마크가 재구성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과정에서 그룬트비는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정치영역에서 그룬트비는 1848년 혁명 이전에 의회주의자가 아니었고 혁명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또한 제헌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후에도 적극적으로 정치적 집단을 형성하거나 구체적 정치적 의제와 관련하여 지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의회제가 성립한 후에는 의회제와 시민적 자유의 확대를 일관되게 지지하였고, 1860년대 2차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자유주의 세력이 권력을 상실하고 보수화가 진행될 때 이에 대해서 반

5) 이 단락은 Baack(1977), Jespersen, K. (2004)의 제6장, 그리고 Lampe and Sharp(2018)의 1장과 2장을 참고하여 요약한 것이다.

대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의회 성립 이전에 이미 문화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었던 그의 이러한 행보는 덴마크 민주주의 정착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전쟁을 거치며 두드러지게 된 덴마크의 민족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그룬트비는 이미 젊은 시절부터 역사에 대한 저작, 중세 덴마크어를 포함한 북유럽언어 연구 및 문학작품 번역, 강연을 통해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그는 로마, 독일, 프랑스와 구분되는 북유럽 정신의 건강성을 강조하였고, 덴마크 민족 정체성의 중심으로 북유럽 신화와 덴마크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근대적 국가의 중심이 될 일반 국민의 계몽을 위한 교육에서 이러한 고유의 역사, 신화, 언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그룬트비의 사상은 서론에서 언급한 덴마크 특유의 교육체계 형성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로써 그는 덴마크의 영토와 구성 민족의 외연은 줄어드는 반면 국가 내 주권자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대중(mass)’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국민(people)에 속해 있음을 자각시키는데’에 (Broadbridge & Korsgaard, 2019: 288)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경제적 영역에서 농지개혁, 산업화의 진전은 대외 전쟁 못지않게 사회적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그러한 긴장 속에서 그룬트비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직시함과 동시에 덴마크의 조건을 반영한 바람직한 경제체제의 구축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려 하였다. Wählin(1984)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룬트비의 경제사상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계기를 통해서 변화해 갔다. 그의 저작 안에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강조, 공공선을 위한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그리고 평등사회에 대한 지향이 모두 나타나고 있어서 덴마크의 모든 정파들이 그룬트비를 인용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되기도 하였다(Vind, 2015: 263). 예컨대 그의 시구(詩句)인 ‘지나치게 부자인 사람은 몇 명 되지 않고, 지나치게 가난한 사람은 더욱 몇 명 되지 않는(Faa har for meget og faerre for lidt) 나라’는 정파를 막론하고 덴마크인들이 지향하는 경제적 이상을 나타내는 표어가 되었다⁶.

III.“정치적 고찰”과 “삶의 기억”에 드러난 ‘농장(農莊)’의 이상화

그룬트비가 자신의 경제사상을 피력한 중요한 문헌으로는 1831년에 발표한 ‘덴마크와 홀스타인에 관한 정치적 고찰’이라는 논설, 1838년에 행한 강연 ‘삶의 기억(Mands Minde)’ 중 특히 영국에

6) 이 시구의 배경과 후대 정치세력들이 그것을 인용한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https://danmarkshistorien.dk/vis/materiale/myte-var-grundtvigs-ord-naar-faa-har-for-meget-og-faerre-for-lidt-velfaerdsstatens-daabsattest>

관한 강연들, 그리고 1848년부터 1851년까지 발행했던 주간지 ‘덴마크인(Danskeren)’에 실린 경제 문제에 관한 논설들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헌들을 통해서 그가 경제에 대해서 가졌던 사상의 체계와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한다.

1831년 발표된 ‘덴마크와 홀스타인에 관한 정치적 고찰’은 그룬트비가 현실 정치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제시한 글이다(Broadbridge & Korsgaard, 2019: 76). 여기서 그는 모든 사람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의회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의를 가진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보수적인 정치관(政治觀)의 피력이라고 볼 수 있다.⁷ 그룬트비는 1848년 입헌군주제로의 전환을 일으킨 3월 혁명 이전까지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며 이러한 견해의 밑바탕에는 1660년 프레데릭 3세 때 이루어진 봉건제의 절대군주제로의 평화적 전환을 자랑할 만한 것으로 보고 또한 그 후 군주제하에서 이루어진 업적들을 높이 평가하는 그의 인식이 깔려있다(Grundtvig(1838), 6월 27일 강연).

경제사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은 ‘순수한’ 군주제를 지지하고 과두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잘 관리되고 있는’ 덴마크의 농장(Gods)과 역시 ‘잘 관리되고 있는’ 영국의 공장을 비교한 부분이다(Wählin, 1994: 158).

전자(덴마크의 농장을 말함: 필자)에서는 모든 것이 일반의 복지와 미래를 고려하여 계산되는 반면, 후자(영국의 공장을 말함: 필자)에서는 모든 것이 순간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되는 한편 노동자들은 기계를 대하는 것 같은 무관심 속에 소모되고 버려진다. 다른 한편 일을 맡은 사람은 관련자들을 속이는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온갖 흥정과 술수를 통해서 빼어먹음으로써 자기자신이 한몫을 잡으려고 한다(Grundtvig(1831), 1절)⁸.

여기서 ‘덴마크의 농장’과 ‘영국의 공장’은 군주제와 과두제를 비교하기 위한 비유(譬喩)의 보조 관념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두 생산 단위의 특징을 ‘운영의 목적(일반의 복지인가 소수자의 이익인가)’과 ‘운영에 고려되는 시간의 길이(미래인가 순간인가)’ 측면에서 비교하면서 공장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자들을 소모하고 폐기하는 공장제의

7) 이 논설의 역사적 배경과 거기서 그룬트비가 정치체제에 대해서 전개한 논리에 대해서는 Wählin(1994)를 참조하라.

8) 덴마크어 전문가의 질정(叱正)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하 그룬트비를 인용할 때 각주에 원문을 보인다. Hist seer Man da Alt beregnet paa almindelig Velstand, og paa Frem-Tiden, her derimod Alt beregnet paa Øieblikket, og paa Eiernes Vinding, mens Arbeiderne slides op og casseres med samme Ligeegyldighed som Machinerne; og mens han, der staaer for Værket, seer til at skabe sig en uafhængig Formue, om ikke ved at bedrage Interessenterne, saa dog ved at prutte og høre saa det svider til Stympeme.

문제점도 직시하고 있다. 즉, 이윤추구 원리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가 단기적 이익 추구, 공공적 가치의 경시, 인간의 도구화 등의 문제를 갖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룬트비가 옹호하고자 하는 군주제의 비유 대상으로서 ‘농장’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물론 당시 덴마크에는 영국과 달리 산업화가 진전되지 않아서 가장 주요한 경제활동 단위가 농장이었다는 데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배경 요인은 그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이루어진 덴마크의 농업개혁을 매우 중시하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1838년 그가 행한 강연 시리즈 “삶의 기억”에서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그 개혁과 1834년 설치된 국민자문위원회(folkelige Statsraad)를 덴마크가 이룬 위대한 성취로 평가하고 있다.

프레데릭 6세의 아버지와 같은 통치 아래에서 최근 50년간 이루어진 농민계층의 성장, 덴마크어의 존중과 계발, 국민정신의 재각성과 국민심성의 회복, 이것은 바로 사회의 행복을 위한 진보였다. 나 뿐만 아니라 눈밖은 모든 세계인들이 이러한 발걸음 중에서 특히 두 가지, 즉 1788년 영주의 농민 출향제한권 폐지와 1834년 국민자문회의의 설치를 ‘거인(巨人)의 걸음’으로 부르고 있다 (Grundtvig(1838), 6월 27일 강연)⁹.

1733년 창설된 영주의 농민 출향제한권(出郷制限權:덴마크어 stavnsbaand, 영어 adscription)은 일정한 연령대의 농민 남성들이 영주의 허가 없이는 자신이 출생한 영지를 이탈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1730년대 덴마크 농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서 곤궁에 처한 농민들이 농촌을 이탈하여 도시로 이동하자 자신의 장원경작을 위해서 노동력 확보를 원했던 영주계급과 군(軍) 병력 확보가 필요했던 절대왕정의 이익이 서로 부합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¹⁰ 이같은 영주의 경제외적 강제 폐지는 절대왕정을 강화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근대적 사회로의 전환의 결정적 계기가 된 농업개혁의 중요한 고리이기도 했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룬트비는 이러한 영주의 강제력 폐지와 농민계층의 성장을 19세기 전반¹¹에 이루어진 덴마크의 중요한 진보로 인식하

9) alt, hvad der i de sidste halvtredsindstyve Aar under Frederik den sjettes faderlige Styrelse [er sket] til Bondestandens Opkomst, til Modersmaalets Adling og bedre Dyrkelse, til Folke-Aandens Oplivelse og Folke-Hjærtets Vederkvælgelse, det er lige saa mange Fremskridt til borgerlig Lyksalighed; og det er ikke blot mig, det er hele den oplyste Verden, der kalder to af disse Skridt Kæmpe-Skridt, nemlig Stavnsbaandets Løsning 1788 og Oprettelsen af det folkelige Statsraad 1834.

10) Jespersen(2004), p.55, <https://danmarkshistorien.dk/vis/materiale/stavnsbaand-1733-1800>

11) 프레데릭 6세는 1808년부터 1839년까지 재위했다.

고 있었고 이것은 아래에서 보듯이 농민의 자기 소유에 입각한 자영 농업을 경제체제의 중심으로 강조하는 입장으로 이어진다.

IV. “삶의 기억”에 드러난 영국 찬양과 비판

그룬트비는 “삶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1838년에 51회에 걸친 연속강연을 행하였다. 이 강연은 유럽 각국에서 전개되었던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와 교훈을 자신의 시각으로 정리한 것으로 대중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Broadbridge & Korsgaard, 2019: 43). 여기서 경제사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영국의 성취에 대한 그의 찬탄과 비판이다¹². 여기에는 당시 영국 사회의 특징이었던 이익 추구, 노동과 산업, 자유에 대한 그의 긍정적 입장과 그러한 원리에 기초한 산업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그의 예리한 비판이 모두 나타나 있다.

1. 찬탄: 이익추구와 자유

그룬트비는 1829, 1830, 1831년 3차례에 걸쳐 국왕의 재정지원을 받아 영국에 체류하면서 당시 유럽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던 그 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직접적 관찰에 근거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노동과 기업이 인간의 삶에 가져다주는 이익을 찬탄한다.

대부분 곳에서 사람들은 채찍 때문에 일한다. 독일에서 근면(Arbejdssomhed)은 그 자체를 위해 실천해야 하는 미덕으로 여겨지며, 일(Arbejde)에서 얻는 이익이나 즐거움이 적을수록 더 순수해진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직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영국으로 여행을 떠나야 한다. 이 수고는 충분히 할 만하다. 왜냐하면 근면이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오랫동안 의심해 왔지만, 근면의 대가(代價)가 가장 높고, 그것만이 인간의 삶과 그 모든 힘과 유익하게 교환되는 것이라는 점이 뚜렷하게 보인다. 그렇다, 자유롭게 활기 있는 기업활동, 이익이 되는 것을 능숙하게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진정으로, 영속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에 대한 밝은 안목, 이것이야말로 내가 영국에 대해서 내가 감탄해 마지않는 점이다(Grundtvig(1838), 11월 9일 강연)¹³.

12) 이 강연에는 프랑스 대혁명의 의미와 그것이 공포정치와 나폴레옹의 독재로 이어지게 된 이유, 독일의 자기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과 독일통일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도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그룬트비는 ‘도덕’이 아니라 ‘이익 추구’가 일과 근면의 동기가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주목할 점은 그러한 동기에 이끌린 근면이 ‘인간의 삶(Minneske-Livet)’과 ‘결실이 풍부한(frugtbar)’ 교환작용을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룬트비는 그 사상체계 전반에 걸쳐서 ‘삶(Livet)’을 죽음과 대비시키면서 인간과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 가치로 부각하고 있다.¹⁴ 따라서 이익 추구에 기반한 근면을 인간의 ‘삶’이라는 가치와 연결함으로써 그는 근면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용인(容認)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익추구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 위에서 그룬트비는 영국의 발달한 산업과 그로 인해 축적되는 부의 근원이 ‘자유’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후술할 “덴마크인”이라는 주간지에 게재한 논설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본 이후로는 두 가지 악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자유 없는 질서보다는 질서 없는 자유가 낫다고 생각해 왔다’고 밝힌다(Grundtvig(1848), 3월 14일 자 논설).

경제적 번영의 전제 조건으로서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는 영국 자유주의의 특징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기심(self-love)’이 교환과 시장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발전하는 분업과 생산력의 증대가 국가의 부(富)를 가져온다는 이론을 전개했다. 그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개별 주체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중상주의적 국가개입을 비판했다. 이러한 이론은 당시 유럽 지성인 사회에 급속히 확산되었고 그룬트비도 이 이론을 알았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¹⁵

그러나, 그룬트비에서 주목할 점은 경제적 번영의 기초로서 경제적 이익 추구의 자유뿐 아니라 시민적 자유, 특히 신앙과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인이든 대장장이든, 그 어떤 자유로운 영혼이 질서를 배우려고 감옥에 있기를 바라겠는가? 또한 밀치고 밀어냄을 아무리 당하더라도 자유롭게 자신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자신의 시간과 힘을 쓸 수 있고, 자신의 먹을 것을 벌고 자신의 견해를 전파할 수 있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유럽 어

13) Ja, m. H., de fleste Steder arbejder man for Prygl, og i Tyskland ansér man Arbejdsomhed for en Dyd, der bør øves for dens egen Skyld og bliver renere, jo mindre enten Nytte eller Fornøjelse man har af sit Arbejde; men vil man se Folk arbejde udelukkende for Nyttens Skyld, da maa man rejse til England, og det er nok Umagen værdt; thi lad det længe nok være tvivlsomt, om denne Arbejdsomhed er Mennesket værdigst, saa er det dog lige vist, baade at den betaler sig bedst, og at den alene staar i frugtbar Vexel-Virkning med Menneske-Livet og alle dets Kræfter. Ja, m. H., den fri og levende Virksomhed, det mesterlige Greb paa det gavnlige og det klare Syn for det virkelig og varig ærefulde, det var egentlig, hvad jeg beundrede i England.

14) 예를 들어 1838년 발표한 학교에 대한 논설 ‘소외의 삶을 위한 학교와 아카데미(Skolen for Livet og Academiet i Soer borgerlig betragtet)’에서 이 대비가 두드러진다.

15) Vind(2015)는 그룬트비가 스미스의 ‘국부론’ 책을 갖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그가 스미스를 인용한 적은 없으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알고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Vind(2015), p.257, 264). 또한 그가 영국의 자유주의적 학술자들을 정기구독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지적한다(Vind(2015), p.257).

디에도 이 모든 것을 영국만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이야말로 바로 영국의 산업과 영국의 부의 근원이며, 이야말로 영국의 위대한 업적을 설명해주는 바이며, 내가 영국을 찬양하는 이유이다.(Grundtvig(1838), 11월 12일 강연)¹⁶

그룬트비는 1827년 발표한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Om Religions-Frihed)’라는 논설에서 국가가 개인의 신앙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격한 바 있다. 그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행했던 신앙 문제 관련 강제 조치들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강제는 신약성경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이며, 그 후 기독교의 전개 과정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잘못을 따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Grundtvig(1827)). 또한 그는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정신적 자유와 신체의 자유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통찰하였다(Broadbridge & Korsgaard, 2019: 206-207, 211-216)¹⁷. 또한 언론의 자유는 그룬트비에게는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였다. 그는 1825년 신학교수 클라우젠의 저서를 문서로 격렬히 비판한 결과¹⁸ 클라우젠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종신 검열 대상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¹⁹.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계기를 떠나서도 ‘자유’는 그룬트비의 전체 사상체계에서도 ‘입으로 하는 말’, ‘삶’, ‘문화적 민족주의’, ‘공동체적 시민’ 등과 더불어 핵심적 요소이다(Michelson, 1969: 291).

또한 그는 자신이 증기기관을 처음 대하였을 때 느꼈던 충격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기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며 그것을 자신이 평생을 통해서 찬양했던 ‘북유럽의 위대한 영혼’에서 나온 것으로 찬탄하기까지 한다.

누구든지 진리를 사랑하는 사상가는 강력한 결과를 보게 되면 그것이 강력한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필요하다면, 증기기관이 가진 수천 마력의 힘을 보고 그것이 인간의 위대함과 그 발견자들 속에 있는 북유럽의 위대한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16) Rimsmed eller Grovsmed, hvilken fribaaren Sjæl skulde ønske sig i Tugthuset, for at lære Orden, skulde ikke taale mange Puf og Stød, for at kunne frit baade dyrke sin Gud og anvende sin Tid og sine Kræfter, tjene sit Brød og udbrede sine Anskuelse; og alt dette kan man ingensteds i Evropa saa frit som i England ; det er Kilden til den engelske Virksomhed som til den engelske Rigdom, det er Forklaringen af det engelske Størværk, det er Grunden, hvi jeg priser England.

17) 이것을 그룬트비는 다음과 같이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영국인의 신앙과 양심은 노예가 되기 전에는 통제될 수가 없다 - 손과 발과 펜과 입이! (Broadbridge and Korsgaard(2019), p.211)

18) 클라우젠은 성경이 신앙의 기초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신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평신도들은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룬트비는 이에 맞서서 기독교의 기초로서 역사를 강조하고 교회 공동체와 성례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Allchin, 2015: 105-111).

19)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는 이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에 집필되었다. 따라서 이 재판이 이 글의 외적 동기일 수 있다. 그룬트비가 받았던 평생 검열 대상 명령은 1837년 해제되었다.

<http://www.xn--grundtvigsvrker-7lb.dk/tekstvisning/19658/0#%220%22:0,%22v0%22:0,%22k%22:1>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필요하다면.[중략].. 나의 찬탄(讚歎)이 가장 쓸모 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찬탄은 내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직 명백한 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Grundtvig(1838), 11월 14일 강연)²⁰

오히려 반대로 사막에서도 낙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위대한 영혼을 찬탄할 수 밖에 없고, 우리의 학문 중에서도 그 자체로는 가장 죽어 있고 공허한 것인 수학조차 활기 있는 경제활동을 위한 비길 데 없는 박차(拍車)로, 거인들이 힘을 합해도 움직이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지렛대로 삼을 수밖에 없다.(Grundtvig(1838), 11월 14일 강연)²¹

이처럼 그룬트비는 기계와 과학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느낌’과 ‘견해’와 상충하더라도 그것이 가져다주는 위대한 결과를 보고 그것이 위대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의 교육에 관한 저술들²²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수학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위의 인용문에도 드러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더 일반적인 의미로는 과학)과 기계의 유용성이 너무나도 크고 인상적이었기에 그룬트비는 그것의 근원을 북유럽의 위대한 영혼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그룬트비는 영국에 대한 찬탄을 통해서 이익 추구를 위한 경제활동을 긍정하고, 기계와 과학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러한 요소들을 자신의 전체적 사상체계에서 핵심적 가치인 ‘삶’ 그리고 긍정적 가치의 근원으로 생각한 ‘북유럽의 위대한 영혼’과 연결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부로 이어지기 위한 근본적 조건으로 자유를 강조하였고,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경제적 이익 추구의 자유뿐 아니라 신앙과 언론 등 시민적 자유를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2. 영국의 어두운 미래: 빈곤과 정치체제의 부전(不全)

반면, 그룬트비는 개인의 이익 추구하고 기계화라는 바탕 위에서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초래하는 문제도 직시하고 있었다.

20) trængte det til noget Bevis, at enhver sandhedskjærlig Tænkter ser sig nødt til at slutte fra stærke Virkninger til store Aarsager, fra Dampmaskinernes tusendfoldige Hestekraft til menneskelig Storhed og til Nordens Kæmpe-Aand hos Opdagerne, ...da var min Lovtale et af de gyldigste, fordi den ingenlunde falder mig naturligt, men aftvinges mig kun af den indlysende Sandhed.

21) men nødes tvært imod til at beundre den Kæmpe-Aand, der selv i Ørken kan skabe et Paradis, gjøre selv Matematikken, i sig selv den dødeste og tommeste af alle vore Kundskaber, til en mageløs Spore for levende Virksomhed og til en Løftestang for, hvad der falder selv Kæmpers forenede Hænder for svært.

22) 그가 “삶의 기억”과 같은 해에 발표한, “삶을 위한 학교 그리고 소외 아카데미(Grundtvig(1838))”가 대표적이다.

그는 증기기관을 처음 보았을 때 그가 느꼈던 감각적 두려움을 묘사한 후에 기계가 중심이 되고 수많은 인간이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기계에 밀려서 지위를 상실한 수공 기술자들이 기계 전문가의 도구가 되고, 공장주의 노예가 되어서 생각 없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를 이야기하고 있다(Grundtvig(1838), 11월 14일 강연). 단, 그룬트비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수학과 기계와 부지런한 경제활동을 금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앞에서 인용한 바처럼, 그것들이 엄청난 유용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의의 마지막에 영국의 산업사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를 잊지 않는다.

내가 한탄할 수 있고 실제로 한탄하는 바는 북유럽의 거인의 영혼이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영혼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이것 보다 더 위대한 것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탄하는 바는 영국의 기업활동이 갈수록 이른바 순이윤이라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그 수단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하고, 순간의 노예가 되어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Grundtvig(1838), 11월 14일 강연)²³

즉, 그는 여기서 앞에서 살핀 바 있는 “정치적 고찰”에서 언급했던 문제, 즉 산업체계가 단기적 이윤에 매몰되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지지만 한다면 영국이 이 문제를 결국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영국은 곧, 자신이 수천명의 인간들을 기계에 희생제물로 바치고 그의 영혼의 힘을 산술적 크기 그리고 수학적 계산의 대상으로 해체시킴으로써 잘못된 길을 갔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계를 만들어낸 바로 그 거인의 정신이 그것을 없애버리거나 혹은 인간의 활동 또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Grundtvig(1838), 11월 14일 강연)²⁴

23) Jeg kan beklage og beklager virkelig, at Nordens Kæmpe-Aand ej gjør bedre og i Aandens Sprog langt større Ting end disse, beklager, at den engelske Virksomhed stedse mer gaar ud paa, hvad man kalder ren Gevinst, uden at bryde sig om Midlerne, træller for Øjeblikket, uden at tænke paa Fremtiden.

24) England vil snart indse, det er paa gale Veje, ved at ofre Mennesker i Hundreetusend-Tal til Maskineriet og ved at opløse sine Aands-Kræfter i aritmetiske Størrelser og matematiske Beregninger; og da vil den samme Kæmpe-Aand, som har skabt Maskinerne, ogsaa forstaa enten at tilintetgjøre dem eller at sætte dem i et tjenligt og tjenerligt Forhold til Menneske-Virksomhed og Menneske-Held.

즉, 이상에서 살펴본 그룬트비의 논의는 오늘날의 경제학적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영국이 현재의 비교우위에 안주해서 경제성장의 근본이 되는 인적 자원 축적에 무관심하다면 비용상 더 우위에 있는 다른 나라의 추격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될 위험성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롭게 우위에 있는 산업영역을 개척한다면 희망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룬트비가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영국에서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빈부의 격차와 그로 인한 사회체제의 불안정화이다(Korsgaard, 2019: 47). 그는 ‘부와 혼란이 ... 영국의 자유와 산업에 큰 위협’이라고 진단하고 있다.(Grundtvig(1838), 11월 12일 강연) 여기서 부가 큰 위협이 되는 까닭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영국인들이 오로지 부‘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며, 또 하나는 막대한 부가 축적되는 다른 한편에 대중의 빈곤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우려는 poor라는 동일한 단어가 가난과 불행은 모두 표현하는 나라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상태이다.(Grundtvig(1838), 6월 27일 강연)²⁵

또한, 그룬트비가 보기에 ‘혼란’이 심화되는 중요한 이유는 기득권 계층의 교만과 탐욕, 그리고 그것을 억제하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는 의회의 과두제적 성격이다(Korsgaard, 2019: 47-48).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귀족들이 가능한 한 끝까지 그들의 특권에 집착한다는 점, 그리고 그들의 사악한 속담 즉 ‘농민들은 묶여 있지(bunden) 않으면 개(hunden)만도 못해진다’는 말을 잊어버리는 법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영국에서 특히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나라 귀족들은 유럽에서는 가장 계몽되고 관대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모든 토지를 이제 막 자신들이 차지해 버렸으며 인위적인 고물가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입으로부터 무자비하게 빵을 앗아 가버렸다.(Grundtvig(1838), 11월 23일)²⁶

25) men Hovedsagen er dog de fattiges uhyre Antal og de fattiges Kaar i et Land, hvor ét og det samme Ord (poor) udtrykker baade fattig og ulykkelig.

26) At nemlig Adelen holder paa sine Privilegier, saa længe den kan, og glemmer sent eller aldrig sit slemme, gamle Mundheld; "Var Bonden ikke bunden, da blev han værre end Hunden ", det ser man blandt andet klart i England, hvis Adel baade er den bedst oplyste og mest frisdende i Evropa, men har lige fuldt revet Landet til sig, og tager uden al Barmhjærtighed, ved kunstig Dyrtid, Brødet af Munden paa de fattige.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그룬트비가 귀족들의 탐욕의 핵심으로 토지 독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판의 대상은 2차 인클로저, 일명 ‘의회 인클로저’인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는 이른바 1, 2차 인클로저를 통해서 중세 이래의 공동체적 토지소유가 사적소유로 전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관습적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중소규모의 토지가 대농과 지주에게 집중되었다. 특히 2차 인클로저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 의회의 입법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김종현, 2007: 217). 그룬트비 본인도 위의 인용문보다 먼저 행했던 강연에서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 시기에 진행된 이른바 1차 인클로저를 통해서 장원주(Herrenmandene)들이 토지를 집적하고 반면 농민 또는 농사짓는 계층(Bondestanden eller Gaardmands-Klassen)이 몰락하게 된 사정을 지적한 바 있다(Grundtvig(1838), 6월 27일 강연). 위의 인용문에서 그룬트비가 ‘이제 막(lige)’이라고 한 것은 이 논설을 쓰던 시점에서 귀족과 부유층이 독점하고 있던 의회에 의한 2차 인클로저의 큰 물결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득권층의 탐욕은 정치체제를 통해서 견제되어야 하지만 영국의 권력을 가진 상원과 하원은, 그룬트비가 보기에. 그 어느 쪽도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상호 대립 때문에 중요한 입법을 진행시키지 못하는 기능부전(不全)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양자의 이익과 일치하지만 민의와는 동떨어진 입법만을 하면서 그것을 민의로 포장하는 일만을 하고 있었다(Grundtvig(1838), 11월 12일).

그러한 체제 문제점의 증거로서 그룬트비는 영국 의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 부재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실제적 입법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곡물법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좌절된 점을 들고 있다(Grundtvig(1838), 11월 12일).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인위적인 고물가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입으로부터 무자비하게 빵을 앗아가기’도 이 곡물법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곡물법은 1660년 이래 지주계급의 이익을 반영하여 곡물수입에 대해서 국내 곡가를 일정한 수준에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신축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수출은 국내 곡가수준과 관련 없이 가능하게 하고 심지어 국내 곡가가 일정 수준 밑으로 하락하며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김종현, 2007: 217-218). 이러한 농업보호체계는 농업생산성 증가에 기여한 바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자본가 계층과 특히 가난한 임금노동자의 이익에는 반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그룬트비에게 의회 인클로저와 곡물법은 영국의 자본주의를 위기로 몰고가는 기득권 계층의 탐욕을 영국의 정치체제가 제어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따라서 그룬트비는 영국의 미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전망한다.

커다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 세대 안에, 영국인 스스로 느끼듯 ‘피바다’를 벌이게 될,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다.(Grundtvig(1838), 6월 27일 강연)²⁷

이같은 그룬트비의 예측은 그 후 실제 역사에서 ‘받은 맞고 받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룬트비가 이 강연을 했던 1838년 바로 그해에 영국에서는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나면서 대규모 대중 집회와 청원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은 공권력과의 충돌을 낳았다. 이것은 그가 말한 ‘피바다’의 예언이 부분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하겠다. 단, 일차적으로 정부는 이 운동을 분쇄하는 데 성공했고 1840년대 말의 운동은 소멸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준 충격은 1867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남성 보통선거가 정착되는 변화를 초래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이 운동으로부터 퍼거스 오코노(Fergus O’connor)의 토지개혁 운동,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이 성장하게 되며(김택현, 2008) 이러한 세력들의 활동과 선거제도의 개혁이 만들어 낸 여건 속에서 노동당이 현실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영국 자본주의와 정치체제에 일정한 개혁이 가능하게 되었다(박지향, 2007: 374-375, 404, 410-411). 곡물법도 역시 1838년 결성된 자유주의자들의 ‘반곡물법 동맹’ 운동이 계기가 되어 1846년 폐지되었다. 이로써 영국은 ‘혁명을 피할 수’ 있었으며, 경제 사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영국의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되었다.²⁸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삶의 기억” 강연을 하는 시점에서 그룬트비는 이전의 “정치적 고찰”에서 영국의 공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것과는 달리, 이익추구와 자유에 기반한 영국의 경제발전을 찬탄하고 있으며 기계가 가져다주는 이익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기계화에 따른 인간성의 상실, 단기적 이윤 매물, 대중의 빈곤, 토지독점의 폐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국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득권층의 무시와 무관심 그리고 의회로 대표되는 정치체제의 대표성 부족과 비효율성으로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²⁹

27) ser jeg dog ikke, hvorledes det endnu en Menneske-Alder uden et stort Mirakel kan undgaa en Revolution, der, efter Engelskmændenes egen Anelse, vilde skabe “et Ocean af Blod”.

28) 예컨대 Williamson(1980)에 따르면 영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1827년 0.293에서 1851년 0.358로 악화되었으나 1881년 0.328로 개선되었다.

29) 그룬트비는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제시한 인간본성에 내재하는 ‘타인에 대한 공감’, 그리고 ‘공정한 관찰자’와 ‘정의를 침해할 때에 미칠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그의 저술에서, 특히 적어도 영국에 관한 관찰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룬트비는 아래에 설명할 바와 같이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저절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계몽’을 통해서 길러져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V. “덴마크인”에 나타난 경제체제론

그룬트비는 덴마크가 1차 슐레스비히 전쟁(3년 전쟁)을 치르고 있던 시기에³⁰ “덴마크인”이라는 주간지를 발간하면서 덴마크라는 민족 또는 국가의 정체성의 수립과, 바람직한 사회체제에 대한 그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이하에서는 특히 경제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두 개의 논설을 중심으로 그의 경제관을 살펴본다. 이 논설들에는 이전에 비해서 소유권 존중과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자유주의적 경제관이 더욱 두드러지고 체계적으로 서술되지만(Wahlin, 1994: 263) 동시에 공동선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사고(思考)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더욱이 덴마크의 현실에서 자신의 이상적 경제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까지 제시하는 등 경제가로서의 그의 면모가 드러나 있다.

1. ‘덴마크, 독일,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소유권과 경제활동의 자유

(1) 소유권과 영업자유성의 중요성

먼저 1848년 6월 28일자 ‘덴마크, 독일,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라는 논설에서 그룬트비는, 오늘날의 용어를 빌리자면, 바람직한 ‘경제체제’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소유권과 경제활동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유주의적 경제관에 매우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한편으로 비교적 부가 균등하게 분배되는 사회라는 비전을 견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소유권과 경제적 자유 존중 이외에도 다른 조건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바로 중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소유자가 수적으로 많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경제주체들의 삶의 기반을 파괴할 만한 대기업이 다수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이 논설은 ‘자기소유가 죽어버리면 그와 같은 것은 절대 찾지 못한다(Døer Selvhave, da findes aldrig hendes Mage.)’라는 속담의 의미를 논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설은 크게 전반부의 정치적 해석과 후반부의 경제적 해석으로 나뉘어 있는데,³¹ 정치적 해석에서는 Selvhave를 국가의 주권의 근원이 되는 민족언어로 해석하면서 그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다른 한편, 후반부의 경제적 해석에서는 그 속담을 ‘자기소유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된다(Døer Selvhave, da gaaer alting af Lave)’로 변형하여 자기소유(Selfhave)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0) 슐레스비히 전쟁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는 Wahlin(1994)을 참조하라.

31) 그룬트비는 ‘folkelig Forklaring’과 ‘borgerlig Forklaring’이라는 용어로 양자를 표현하고 있다. Grundvig(1848) p.235쪽

소유권은 시민사회의 기본규칙일 뿐 아니라 그 토대라서 그것을 빼내면 전체 건물이 자갈더미로 무너져 내린다.(Grundtvig(1848), 6월 28일자)³²

우선 주목할 점은 그룬트비가 여기서 ‘소유(Eiendom)’, ‘소유권(Eiendoms-Retten)’이라는 개념을 전면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점이다. 그는 앞에서 언급했던 방대한 강연인 “삶의 기억”에서 세계 각국의 역사를 고찰하면서 영국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자유’가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었고 ‘소유’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논설에서는 이 단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고 있다. 그는 이 소유권을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존립조건으로 보고 있다.

그룬트비가 소유권 존중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먼저 강조하는 것은 부자로부터 빈자로의 재분배를 통한 ‘결과의 평등화’ 추구, 그리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경제적 생존보장에 대한 반대 입장이다. 그는 이 논설의 전반부에서 강조한 ‘자기언어’ 즉 덴마크어 존중의 적(敵)으로서 독일과 독일어를 부각했었는데, 후반부에서 소유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는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프랑스의 실험을 어리석은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인간의 죄성(罪性)에서 찾고 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므로, 우리 모두를 덕성의 모범인 듯 다룬다면 그것인 당연히 엄청난 잘못이다...[중략]...그러므로 어떤 정부이든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이 대신하려 들면서 주님께 어떻게 [사람들의] 분깃과 축복을 바꾸어 동일해지도록 한 것인지를 가르치려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수치를 돌리고 하늘에 사무치는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그러한 시도를 빨리 저지 않으면, 부자와 빈자 모두를 무한히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Grundtvig(1848), 6월 28일자)³³

이 인용문의 바로 앞에서 그룬트비가 직접 언급한 프랑스의 구체적 실험은 1848년 2월 혁명 직후 설립된 국립작업장(덴마크어 National-Værksteder, 프랑스어: Ateliers nationaux)들이다. 당시 2월 혁명정부는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 2프랑을 지불하려고 하였다(노명식, 2011: 345). 이 실험은 증가하는 실업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4개월 만에 폐쇄됨으로써 실패로 끝났

32) Eiendoms-Retten ikke blot er det Borgerlige Selskabs Grundlov, men ogsaa dets Grundvold, saa naar den tages bort, synker hele Bygningen i Grus.

33) da vi er alle Syndere, maa det naturligviis blive splittergalt, naar vi alle behandles som Dydsmonstre, ..., saa enhver Øvrighed, der vil træde i Forsynets Sted og lære Vorherre, hvordan Han skulde skiftet Lodd og Lykke, saa det gik ligeligt til, den maa nødvendig ikke blot beskæmme sig selv og begaae himmelraabende Uretfærdighed, men, standses den ikke snart i Farten, gjøre alle baade Rige og Fattige grændseløs ulykkelige.

다. 여기서 그룬트비의 비판은 직접적으로는 이 국립작업장을 향하고 있지만 그는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 생존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려는 시도를 비판한다. 이러한 입장은 같은 “덴마크인”에 두 달 후에 실린 ‘헌법과 덴마크 국가헌법에 대하여’라는 논설에 더 명확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기본법에서는 국가에게 국민들을 먹이고 입힐 책무를 지워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어디에서나 그와는 반대로 국민이 국가를 먹이고 입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을 부자들의 시민적 책무로 지워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모든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국민들을 자기 자신이나 서로를 먹이고 웃입히지 못하는 거지로 만들게 된다. 부자와 빈자를 유익하게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줄인 사랑의 유대를 끊어버리게 되고, 계층을 부추겨서 근면함이 죽어버리게 되고, 부(富)를 좌우하는 모든 소유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Grundtvig(1848), 8월 30일자)³⁴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려는 시도는 국민 전체를 빈곤의 늪으로 빠뜨리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 그가 앞에서 시민사회의 토대라고 밝혔던 소유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노동하려는 의욕을 말살시키고, 부자들의 자발적 자선(慈善)을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이같은 재분배 정책 배경과 더불어 그룬트비가 중시하는 요소는 경제활동의 자유이다. “삶의 기억”에서 다른 시민적 권리들과 함께 ‘자유’를 구성하는 일부분이었던 경제활동의 자유는 ‘영업자유(Nærings-Frihed)’로 정확히 호명(呼名)된다.

모든 지혜롭고 인간적인 정부는 사람의 손으로 들어올릴 수 없는 돌은 그대로 둘 것이며, 다만 최대한 가능한 ‘영업의 자유’와 ‘소유안전성’을 통해서 안정적인 복지와 바람직한 균형을 장려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할 것이다.³⁵(Grundtvig(1848), 6월 28일자)

34) Saaledes maa man dog endelig ikke i Grundloven gjøre Øvrigheden til Pligt at føde og klæde Folket, da det tvertimod allevegne er Folket, der maa føde og klæde Øvrigheden; heller ikke maa man gjøre de Rige det til borgerlig Pligt at føde og klæde de Fattige, thi derved stiler man, efter al Erfaring, paa at gjøre hele Folket til Fattiglemmer, der hverken kan føde og klæde sig selv eller hinanden, man overskiærer Kiærligheds-Baadet, som er det eneste, der til Gavn kan forbinde de Rige med de Fattige, man føder Dovenskaben, saa Flittigheden maa sulte, og man undergraver al Eiendoms-Ret, hvormed Formuen staaer og falder.

35) Enhver klog og menneskekiærlig Øvrighed vil derfor lade den Steen ligge, som ingen Haand kan løfte, og kun alvorlig stræbe, ved den størst muelige Nærings-Frihed og Eiendoms-Sikkerhed, at fremme den jævne Velstand og ønskelige Ligevægt..

그룬트비는 영업의 자유의 내용도, 본업이 인문학자라고 하기에는 놀라울 정도의 전문적인 식견으로, 상세히 제시한다. 그 핵심은 각종 규제와 조세 부담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것은 오늘날 공급측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의 핵심적 처방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산업의 흐름을 고도로 자유롭게 만들고 그렇게 유지해서, 길드 강제나 인가(認可) 장애, 그리고 세관의 금지조항에 속박 당하지 않도록, 영업세와 빈민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그리고 대규모 공장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Grundtvig(1848), 6월 28일자)³⁶

(2) 영업자유 의 제한

그러나 위 인용문의 마지막 구절은 영업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전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대규모 공장이 중소기업들의 활동을 손상(혹은 전복)(undergrave)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본 활동 자유의 필요성과 그 자유의 제한 필요성을 그룬트비는 모두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다.

소유가 높은 수준으로 안전해져야만, 무엇인가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업과 산업에 두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돈을 께 속에 놓아두거나 아니면 도망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지만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모든 나라에서 가장 숫자가 많아질 수 있고 많아져야 하는 중간층(Utrængte)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파괴할 정도로 자본이 자유로와서는 안된다 (Grundtvig(1848), 6월 28일자).³⁷

즉, 그룬트비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저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과 관련하여 말했던 것처럼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소유의 안전을 보장받은 가운데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고용과 산업의 발전 그리고 국부가 창출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의 자유에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중간층(Utrængte)의 삶을 파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그 중간층이 숫자상 가장 많을 수 있고(kan: 가능) 또한 가장 많아야 마땅하다(bør: 당위)고 본다. 중간층이 가장 ‘많아야 마땅하다’고 보는 입장은 구성원 다수가 적절한 수준의 삶을 영

36) Nærings-Veiene maa altsaa i høi Grad giøres og holdes frie, saa de hverken bindes ved Laugstvang, Bevillings-Klemme og Toldforbud, eller bebyrdes med Nærings-Skat og Fattig-Skat, eller undergraves af store Fabriker...

37) En Eiendommen maa nemlig være i høi Grad sikker, naar de Fleste, som har noget, dermed skal stræbe at sætte Folk i Virksomhed og Næringsvei, da de ellers enten lægge Pengene paa Kistebunden eller seer til at slippe bort, men Kapitalerne maa ingenlunde være saaledes frie, at de Rige dermed kan ødelægge hvad vi kalder de Utrængte, som hverken er fattige eller rige, men har deres Udkomme, og kan og bør i ethvert Land være de talrigste.

위하는 상태를 사회가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 삼는 태도를 나타낸다. 또한 중간층이 가장 ‘많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소수의 부유층 이외에 나머지 대중이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이 필연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며 조건과 정책에 따라서, 항상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층이 두터운 사회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그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룬트비는 그 가능성이 덴마크에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낙관하며, 그 근거를 객관적 조건과 덴마크인의 주체적 측면 양쪽에서 찾고 있다. 먼저 ‘객관적 조건’을 보자.

덴마크는 자기소유자의 숫자가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고 대규모 공장은,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얼마 되지 않으므로, 자기소유자의 삶을 구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제외한 모든 부양의무법을 폐지하고, 강한 영업자유를 도입함으로써 시(詩)에 있듯이 ‘지나치게 부자인 사람은 몇 명 되지 않고, 지나치게 가난한 사람은 더욱 몇 명 되지 않게(강조 필자)’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Grundtvig(1848), 6월 28일자)³⁸

즉, 당시 덴마크의 중간층과 대규모 공장의 숫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 분포’에서 멀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덴마크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산업화가 늦게 진전되어 그룬트비 생전에는 본격적 산업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였고 대기업이 출현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와 같이 ‘후진적’인 조건을 그룬트비는 오히려 자신의 이상이 실현될 가능성을 높이는 조건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가 낙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객관적 이유는 자기소유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그가 말하는 자기소유자는 후술할 자영농민과 도시 부문의 소상공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세기 말부터 19세 초에 걸친 농업개혁은 이전에 장원주에게 예속적인 상태에 있던 농민을 봉건적 속박에서 풀어내고 선진적 농업기술의 보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영농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그룬트비는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소유권을 보장하고(재분배 정책 배격을 포함한다) 영업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면 중간층이 두터운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³⁹

38) i Danmark, hvor Selveiernes Antal er godt i Tiltagende, og hvor de store Fabriker Gud skee Lov! er faa, vil det ikke falde vanskeligt at redde Selvhaves Liv, afskaffe al anden Forsørgelses-Ret end den indbyrdes mellem Forældre og Børn, og at indføre saa stor en Nærings-Frihed, at det kan gaae, som der staaer i Visen: Faa har for meget og Færre for lidt.

39) 위 인용문의 끝에 언급된 시구는 그룬트비 자신이 1820년에 썼던 ‘훨씬 높은 산들(langt-hoejere-bjerge)’이라는 시에서 가져 온 것이다. 그 시는 외국과 비교할 때 외견상 대단한 것이 없는 덴마크에 대한 만족과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구는 덴마크의 복지국가의 이념적 연원을 그룬트비에서 찾으려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즐겨 인용했다. 그러나 인용문에서 분명히 볼 수 있듯이 그는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다. 이 시구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https://danmarkshistorien.dk/vis/materiale/grundtvig-og-velfaerdsstaten>

이 구절이 담긴 시(詩) 전문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s://hojskolesangbogen.dk/om-sangbogen/historier-om-sangene/j-l/langt-hoejere-bjerge>

(3) 주체의 '계몽'

한편, 그룬트비는 국민들의 계몽과 공동선 추구를 강조했던 사상가로서, 자신의 경제적 이상 실현에 유리한 덴마크만의 '주체적' 조건으로 덴마크인들의 평화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제시한다.

자명하게도 것처럼 크고도 좋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중략]...그들[정치가들]이 시종 자유, 평등, 우애를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아마도 큰 민족들에게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겠지만, 모든 측면에서 평화를 향한 비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평화를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희생을 바치려 하는 작은 나라 덴마크 사람(Folk)들에게서는, 제대로 찾으려 애쓰면 찾을 수 있고, 정성을 다해 돌보고(먹이고) 키운다면(opelske) 자라날 수 있다.(Grundtvig(1848), 6월 28 일자)⁴⁰

그룬트비는 덴마크를 다른 나라에 없는 행운을 가진 나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보았던 절대군주제 시기에 이루어진 농업개혁과 국민자문위원회의 설치였다. 여기서는 덴마크인들의 평화에 대한 사랑이 '자유, 평등, 우애'라는 프랑스 혁명이 내걸었던 이상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러한 가능성이 실재(實在)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탐색과 정성을 다한 육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 육성(nære og opelske)은 바로 계몽(oplysning)이며, 이 계몽의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공동체의 선을 인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품성을 기르는 것이다. 그는 1834년 발표한 '국가를 위한 교육'이라는 논설에서 '진정한 계몽의 출발점은 개인의 존재가 공동체와 더 나아가 세계전체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어야 한다'고 밝히고(Broadbridge et al., 2011: 13) 그 유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그러한 계몽은, 인간의 삶 전체로 확대됨으로써, 그리고 개인, 민족, 그리고 전인류 사이의 깊은 연결관계를 보여줌으로써, 모든 사회 관계에 대해서 바람직한 사고방식이 자라나게 한다 (Broadbridge et al., 2011: 13).

40) Det forstaaer sig selv, at skal saa stort og saa godt et Maal naaes, ...중략... de maae først og sidst tænke paa virkelig Frihed og Lighed og Broderskab, som de kan findes, maaskee ikke hos noget af de store Folk, men kan sikkert findes, naar de rettelig søges, og voxe, naar de omhyggelig næres og opelskes, hos det lille Danske Folk, der har en mageløs Kíærlighed til det Fredegode i alle Maader og vil, for at naae og beholde det, gjøre alle muelige Opoffrelser.

그룬트비가 1847년 10월 25일 새롭게 창립된 ‘수공업자 계몽협회(Selskabet til Handværksstandens Oplysning)’ 앞에서 행했던 연설⁴¹은 그가 이러한 비전이 어떻게 구체화되기를 바랬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이 연설에서 수공업자 계몽협회가, 자신이 늘 강조했듯이 죽은 문자를 추구하는 학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강연과 대화와 노래를 통해서, 수공업자 상호 간 그리고 다른 계층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場)이 되기를 축원하고 있다.

일상사 속에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즉각적 이익만을 살피도록 유혹받고, 따라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동포들을 만나야 할 진정한 필요가 있는 것은 농민과 도시민만이 아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시야를 넓히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같은 나라 사람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상기함을 받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공동의 최선에 대해서 생생하게 상기함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러한 만남이 필요한 것은 도시민과 농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지식인을 말함, 필자)들이다...(Grundtvig(1848), 11월 22일)⁴²

즉, 그룬트비는 이러한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수공업자, 농민, 도시민, 지식인) 모두가 자신의 눈앞의 이익과 관심사에 매몰되지 않고 인류의 구성원으로 그리고 같은 덴마크인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공동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2. ‘장원주 위에 농민’ : 자기소유 주축으로서의 농민과 토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룬트비는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자유와 소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자본과 대공장의 활동이 자기소유자들을 질식시킬 정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기소유자들이 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룬트비는 경제의 이념상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이념 실현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그 방안의 핵심은 자신의 토지를 안정적으로 소유한 자영농민을 광범위하게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룬트비는 자신의 구상을 1849년 9월 1일 “덴마크인”에 실은 ‘장원주(莊園主) 위에 농민(En Bonde ovenpaa en Herremand)’라는 논설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41) 연설을 행한지 약 1년 후 “덴마크인” 1848년 11월 22일자에 실렸다.

42) det er ingenlunde blot Bonde og Borger, som ved sin daglige Syssele fristes til blot at see paa sin egen Dont og sin nærmeste Fordel, og trænger derfor høilig til at mødes med Landsmænd, som har andre Sysler, for i deres Selskab at udvide sin Synskreds og levende mindes om, hvad vi, som Mennesker og Landsmænd, har alle tilfælles, og levende mindes om det fælles Bedste, der skal staae os alle for Øie. Nei, det er ikke blot Borger og Bonde, det er alle, og i en vis Henseende nærmest os,...

(1) 소유권 체제의 수호와 토지균등분배

그룬트비는 교육에서 문자보다 입으로 하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처럼 농민과 토지문제를 논할 때도 당시에 일종의 정치적 구호로 회자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장원주(莊園主) 위에 농민(En Bonde ovenpaa en Herremand)’이라는 말을 화두로 꺼내면서 그 말에 담길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시대와 발맞추고 길을 잃지 않고자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농민을 장원주 위에 두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인지, 같은 말 속에 그것을 참을 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적어도 덴마크에서라도 그것을 사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다른 뜻이 들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한다.(Grundtvig(1849), 9월 1일)⁴³

그룬트비는 우선 ‘농민’과 ‘장원주’라는 단어의 역사적 연원을 살핌으로써 전자를 후자에 비해 중시하는 것이 국가 전체에 유익함을 논증한다.

‘Bonde(농민)’란 고대 덴마크와 우리 북유럽 전체에서는 가옥과 농장을 갖추고 있어서,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의 주인인, 덴마크어로 ‘Selveier(자영농)’,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는 ‘Proprietær’라고 하는, 자유로운, 농사짓는 이를 일컫는 말이었다. 그리고 ‘Herremand(장원주)’란 그와 반대로, 중세에 처음 나타난 말로 자신이 손을 넓게 펼칠 욕심이 있고 그렇게 할 기회를 찾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국민 중 다른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땅이 거의 없게 되었던 것이다. ... 이렇게 이해하면 농민을 장원주 위에 뒀으므로 농민 뿐 아니라 덴마크 전체가 많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Grundtvig(1849), 9월 1일)⁴⁴

이어서 그룬트비는 토지가 소수의 부자들과 장원주(Herremænd) 손에 들어가서 나머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빈궁해지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는 윤리적인 판단과 더불어 그러한 불균등한 분배가 계층을 막론한 이기심 확산으로 인한 사회 갈등 격화와, 강권(強權)으로 간신히 통제되고 있

43) hvem der vil holde Skridt med Tiden og ikke tabes bag af, maa see til at komme paa det rene med sig selv om, i hvilken Mening det er splittergalt at sætte en Bonde ovenpaa en Herremand, og om der ikke kan ligge en anden Mening i de samme Ord, der ikke blot gjør dem taalelige, men, allenfalds i Danmark, kan gjøre dem yndige!

44) ...at “Bonde” er fra Oldtiden i Danmark og i hele vort Norden, Navnet paa den fribaarne Landmand, som havde Huus og Gaard og var, forsaavidt det lader sig gjøre, sin egen Herre, paa Dansk “Selveier” paa pluddervælsk “Proprietær”, og at “Herremand” derimod er et Navn, som først opkom i Middelalderen til dem, der havde faaet Lyst og fundet Leilighed til at gjøre deres Fingre saa brede, at der blev kun lidt af Landet tilovers for den øvrige Deel af Folket.....saaledes forstaet, vilde ikke blot Bønderne men hele Danmark vinde meget ved at sætte en Bonde ovenpaa en Herremand.

는 대규모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출현을 초래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과학적 진단을 내린다. 이러한 판단과 진단 위에서 그는 토지 소유의 균등한 분배가 소유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다.

그러므로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라 안에 안정적 소유가 '수많은' '굳건한' 자영농민들 (Selveier) 사이에 분배됨으로써 어떠한 사태가 있을 때에 그들이 소유권을 지켜낼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지위가 전체적으로 충분히 좋은 상태에 있어서 소유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의지'가 있으리라고 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강조 원저자)(Grundtvig(1849), 9월 1일)⁴⁵

그룬트비는 이처럼 소유권 체계를 지켜내기에 충분한 자영농 계층의 창출과 관련해서 상당히 전략적인 사고를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나라의 토지 대부분을 다수의 자기소유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익하고 효율적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할 것이다. 단, 그들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근면한 남성조차 아내와 자녀들과 아예 살아갈 수 없거나 아니면 그저 비참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된다.(Grundtvig(1849), 9월 1일)⁴⁶

즉, 하나의 계층으로서 소유체계를 지켜내기에 충분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의 '숫자'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는 사실과, 다른 한편 그들이 자신의 지위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신의 소유에 기반하여 얻을 수 있는 생활 수준이 일정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그 소유의 평균적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영농 중심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그룬트비는 당시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평생 임차농(보유농)(Fæstere)을 자영농(Selveier)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창출되는 3만~4만 개의 농장이 합병되거나 분할되는 것을 막는 규제를 둘 것을 주장한다.

45) saa nu er det aldeles nødvendigt, at de faste Eiendomme i et Land baade er fordeelte mellem saamange og saa haandfaste Selveiere, at de i paakommende Tilfælde kan forsvare Eiendoms-Retten, og at deres Stilling i det hele er saa god, at man tør forudsætte, de ogsaa vil vove alt til dens Forsvar.

46) Endelig vil det i alle Maader være ligesaa gavnligt, som det er billigt, og efter Omstændighederne nødvendigt, at den største Deel af Landets Jordsmon bliver deelt mellem et stort Tal Selveiere, men dog ikke udstykket saa smaat, at selv en arbeidsom Mand slet ikke eller dog kun kummerlig kan leve deraf med Kone og Børn.

따라서 덴마크의 생사가 걸린 문제는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들 숫자만큼 자기소유에 입각한(자영) 농민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임차농에 불과한 농사짓는 이들이 자기소유자가 되는 것이며, 둘째는 이 3만-4만 개의 농장에 제약을 두어서 유지함으로써 그들의 합병과 분열을 방지하는 것이다.(Grundtvig(1849), 9월 1일)⁴⁷

그는 18세기 말, 19세기 초 프레데릭 6세 시기에 이루어졌던 덴마크의 농업개혁이 이 두 가지를 시도한 것이었고 성과가 없지는 않았지만, 결국 불철저하게 관철되어서 차지농 모두가 자영농으로 전환되지 못했고 농장의 합병을 묵과했음을 지적한다. 이 개혁이 의도하고 창출하려고 했던 구조가 실현되지 못하고, 부분적 성과조차 후퇴하게 된 배경에는 ‘토지 소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거짓되고 또한 잘못된 두 가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토지소유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타인에게 임대되어 버리지(bortfæstes)않게 되는 한 누가 소유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는 농장에 대한 권리를 토지부(土地簿 Jordbog)에 등기한 사람은 그로써 완전한(배타적)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수의 장원주(莊園主)를 제외하고는 전체 국민이 조국의 땅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말이다! (Grundtvig(1849), 9월 1일)⁴⁸

여기서 그룬트비가 경계하는 것은 첫 번째 ‘잘못된 전제’와 관련해서는 토지를 적정규모의 자영농이 아닌 대토지 소유자가 소유하도록 방치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전제’와 관련해서 그가 우려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차지인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임대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들은 적정규모 토지소유에 기초한 자영농 체계를 뒤흔들고 임대농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부(富)가 지주계급에 집중되게 만든다.

그룬트비는 이러한 ‘잘못된 전제’를 일종의 ‘토지공유(共有)’ 사상에 기반하여 비판한다.

이 두가지는 모두 근본적으로 오류이며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국민(Folk)이 국토의 기본

47) Det er følgerig et Livs-Spørgsmaal for Danmark, om vi kan faae og beholde saamange Selveier-Bønder som vi har Gaardmænd, og dertil udkræves to Ting: først at de Gaardmænd, som kun er Fæstere, blive Selveiere, og at der dog bliver ved at hvile et Baand paa disse 30-40,000 Gaarde, som hindrer deres Sammenlægning og Udstykning.

48) Man gaaer nemlig ud fra to Forudsætninger, som er lige falske og lige fordærvelige, den ene, at det kan være det samme, hvem der eier Jorden, naar den blot er fri Eiendom og skal ikke bortfæstes, og den anden, at hvem der har lovlige thinglæst Skiøde paa et Jordbrug, har ogsaa fuld Eiendoms-Ret derover, om saa end hele Folket, paa nogle faa Herremænd nær, derved berøvedes deres Fædemeland.

소유자(주권자)이며 그 어떤 법으로도 그들이 자신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분배될 수 있고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토지의 이익과 사용뿐이며, 이 매매는 마땅히 공동의 최선을 고려하고 국방과 국가평화의 유지를 특별히 고려하는 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Grundtvig(1849), 9월 1일)⁴⁹

즉, 그는 토지는 다른 소유 대상과는 달리 개인이 완전한 사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을 넘어서 불신앙(ungodly)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왕'이 되었든 한 무리의 '장원주'들이 되었든 그들이 토지를 '소유'한다고 하고, 그들이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거나 팔 수 있다고 하고, 따라서 원한다면 '황폐'한 채로 방치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파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국민이 굶어 죽어도 좋다는 잘못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입법을 했다면, 그러한 법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며', '불신앙적(불경건)인' 것이며 즉각 폐지해야 함을 쉽게 알 수 있다. (강조는 원문) '법률가'들이 '완전한 소유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돈, 옷, 또는 가구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 누구도 자신의 '집'에 대해서는 가질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전체 국민을 지탱하고 먹여 살리는 '토지'에 대해서도 완전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주체는 전체 '국민'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Grundtvig(1849), 9월 1일)⁵⁰

이처럼 토지는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고 국민(Folk)이라는 공동체가 소유하는 것이며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이익이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뿐이라는 사상은 구약 레위기의 토지에 관한 희년 규정에 담겨 있는 사상과 유사해 보인다. 레위기 23:25절에 나타난 토지 신유(神有) 사상('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은 토지의 영구적 매매금지(레 23:25), 희년마다 원소유자의 토지로의 귀환(23:10), 그리고 토지 매매 시 희년까지 남은 연수 즉 이용가능 기간을 감안한 가격설정(23:15-16) 등 구체적 토지관련 규정의 기초가 된다. 단, 그룬트비는 토지에 대한 자신의 사상

49) Begge Dele er grundfalske og fordævelige, thi ethvert Folk er sit Fædernelands Grund-Eier (paa pluddervælsk "Suveræn") og kan aldrig retmæssig ved nogen Lov tabe sin Eiendoms-Ret, saa det er kun Nyttens og Brugen af Jorden, der retmæssig kan fordeles ved Lands-Loven og blive Gienstand for Kiøb og Salg, og disse Ting bør da ordnes ved Love, som har fælles Bedste for Øie og tager særdeles Hensyn til Landets Forsvar og Landfredens Haandhævelse.

50) Om vi derfor havde faaet en Lovgivning, som gik ud fra den falske Grundsætning, at enten Kongen eller en Slump Herremænd eiede Landet og kunde give eller sælge det til hvem de vilde, og kunde altsaa, om de lystede, lade det ligge øde, ja, med Flid ødelægge det, saa hele Folket maatte sulte ihjel, da seer man let, at saadanne Love var ligesaa uretfærdige, som ubillige og ugudelige, og burde uden videre afskaffes. Hvad Juristerne kalde fuld Eiendoms-Ret, som man kan have over sine Penge, sine Klæder og sit Boskab, det har Ingen selv over sit Huus og ingen uden hele Folket over Jorden, som skal bære og føde dem.

의 근거로 성경을 인용하지는 않는다. 또한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의 주체로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hele Folket)을 내세우는 것도 성경의 사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목사였던 그가 구약성경의 토지관련 사상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더욱 중요한 점은 ‘신유’ 사상을 명백히 표방하지 않더라도 그의 토지 ‘공유’ 사상이 후술하듯이 토지에 대한 임대조건, 매도대상, 매각가격 등에 대한 개인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고, 토지 관련 매매의 대상을 그 사용과 이익에만 한정한다는 구체적 정책 측면에서 레위의 규정과 유일한 결론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그룬트비의 소유권 제한 사고는 덴마크의 노예제도 철폐를 주장한 그의 논설에서도 나타난다. 덴마크는 1792년 흑인노예 무역을 폐지하였고 노예제도 자체는 덴마크령 서인도에 1848년까지 남아 있었다. 그룬트비는 영국의 노예폐지운동가들의 제안에 호응하여 1839년 덴마크 내 노예제 폐지를 위한 모임(Slavekomite)에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며 그 모임 내 논의 과정에서 노예제 폐지로 손실을 보는 노예주에 대한 보상금액을 노예의 시장가격이나 경매가격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1848년 제헌의회에서도 ‘그 누구도 다른 인간에 대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Broadbridge & Korsgaard, 2019: 217-223). 즉, 그룬트비는 부를 창출하는 본원적 생산요소인 토지와 인간에 대해서 소유권을 무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었으며 그 소유권이 구체적으로 행사되는 모습인 시장가격에 대해서도 공공의 선을 위해서 제약을 가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2) 자영농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이상과 같은 현실진단과 토지공유 사상 위에서 그룬트비는 자영농을 광범위하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그것은 장원주가 농장을 임대할 경우 임차농에게 평생에 걸쳐 고정된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거나 50년 이상에 걸쳐 임대하도록 한 덴마크의 법규정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그들이 ‘전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임차농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장원주들이 농장을 매각할 것이라고(da vil Herremændene strax lære, at de har ikke fuld Eiendoms-Ret og vil sikkert overlade Fæsterne deres Gaarde til Eiendom paa billige Vilkaar)⁵¹ 전망하였다. 즉, 임대료 인상의 구실이 되곤 했던 임차인 교체와 임대료 인상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장원주 입장에서 임대를 위해서 농장을 소유하는 것이 경제적 실익이 없도록 만듦으로써 임차농에게 농장을 양도하도록 유도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51) Broadbridge and Korsgaard(2019)는 ‘overlade Fæsterne deres Gaarde til Eiendom’을 ‘lease out their farm to tenants’ (p.309)로 영역(英譯)하고 있는데 ‘lease(임대)’는 오역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창출한 자영농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룬트비는 농장이 매각될 경우 그것이 단기적 임대차 관계가 아니라 자영농이 매수하게 하거나, 임차인 평생에 걸친 저율의 임대료 조건 하의 임대만을 가능하게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덴마크가 3만명의 자영 농민을 갖게 되면, 그들을 유지하는 것만이 문제가 된다. 이것을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형성된 농장에 대해서 임대농장에 대한 법을 유지함으로써, 어디서든 농장이 매각되면, 거기에 자영농이 거주하거나 아니면 일생에 걸쳐 임대를 하되 구(舊)토지대장에 따라서 임대료를 정하고, 농장 교체에 대해서만 적절한 인상을 허용하는 것이다. ..
중략..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덴마크가 3만명의 자영농민을 유지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견딜만한 세금부담 하에서는, 검소하고 노력하는 가족을 부양하고 덴마크 왕국과 평화를 자발적이고도 능력 있게 방어하기에 충분한 크기가 될 것이다.(Grundtvig(1849), 9월 1일)⁵²

그룬트비는 이와 같은 자신의 주장이 불러일으킬 비판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이러한 평등의 원칙 또는 소유에 대한 자유로운 통제권 또는 지혜로운 국가경영에 어긋난다고 비판한다면, 이것은 모두 인간과 국민이(Folket)이 국가나 농지경작이나 자본이나 무역수지균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모든 지상의 자원들이 인간과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며 그들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Grundtvig(1849), 9월 1일)⁵³

즉, 그룬트비는 자신의 자작농 육성 및 보존책에 대해서 적어도 3가지 방향에서 비판을 예측하고 있다. 첫째, 평등권 관련 비판은 주로 농지 매각의 대상을 자영농에 국한하는 것에 대한 비판, 둘째,

52) Naar dette skeer, saa Danmark har sine 30,000 Selveier-Bønder, da gjælder det kun om at beholde dem, og det skeer nemmest ved at lade for alle disse Gaarde Loven om Fæstegods blive i Kraft, saa at, hvortit de end sælges, skal de enten beboes af Selveieren eller bortfæstes paa Livstid for Landgildet efter den gamle Jordebog, med passende Forhøielse for Udskiftningen; [thi vel vil der i det enkelte skee meget Fixfax, der ved ingen Love lader sig forhindre,] men Danmark vil dog, hvad der er Hovedsagen, i det hele beholde sine 30,000 Selveiergaarde, der er store nok til, med taalelige Skatter, at ernære en tarvelig og stræbsom Familie og mange nok til at skaffe Riget og Freden et frivilligt og dygtigt Værn.

53) Naar man herimod indvender, enten at dette strider mod Ligheds-Grundsætningen, eller mod den fri Raadighed over Eiendommen, eller mod en klog "Stats-Økonomi", da er det altsammen fordi man ikke indseer eller ikke vil ændse, at Mennesket og Folket hverken er til for Statens eller for Agerdyrkningens, Kapitalernes eller Handels-Balancens Skyld, men at Jorden og alt Jordisk er til for Menneskets og Folkets Skyld og skal benyttes til deres Bedste.

소유에 대한 자유로운 통제권에 대한 비판은 매각 대상 제한은 물론 임대 기간과 임대료 제한에 대한 비판, 그리고 셋째, 그러한 소유권 제한이, 오늘날의 개념을 이용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함으로써 국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한 그룬트비의 일차적 반론은 위의 인용문에 보이듯이 인간과 국민이 국가나 경제활동의 작동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토지를 포함한 모든 자원 활용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구상하는 경제체제 옹호와 그 실현을 위해서 이러한 당위론적 방어 뿐 아니라 현실적 상황에 대한 설명과 보완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현실적 상황과 관련하여 그는 3만 명의 자영농이 소유하고 경작할 농장토지 이외에도 충분한 여분의 토지(en god Deel af Jorden i Land)가 있어서 이 토지들은 자유로운 매매와 통합,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그룬트비가 제시한 소유권 제한이 덴마크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리고 3만 명의 자영농을 위한 토지는 ‘보수적인 요소(conservativt Element)’이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것을 찾는(베드로전서 5장 8절의 인용)’ 끝없는 탐욕에 대한 국민적 방어선(folkeligt Nødværge)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의 토지소유권 제한 또는 공유사상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 공세적 개념이 아니라 소유권 제도 전체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영농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적, 방어적 성격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3) 농민계층의 계몽

그룬트비는 위와 같은 객관적 조건 이외에 이렇게 창출되는 자영농 체계가 국가 전체에 유익한 것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를 언급한다. 그것은 조국과 공동선을 생각하는 농민계층 특히 청년농민들이다.

자명한 사실이지만, 덴마크에 내일 당장 고정적 임차조건을 가진 3만명의 자영 농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들이 비겁하거나 또는 계몽되지 못하고 편협하게 이기적이라면, 그것은 나라에 유익하지도 않고 안전을 가져다 주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정적 임차조건을, 자기들 소유의 가격을 낮추는 원인으로 보아서, 해체하고자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으로 조국의 필요와 공동선(公同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눈감은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Grundtvig(1849), 9월 1일)⁵⁴

54) Det følger nemlig af sig selv, at om end Danmark imorgen havde sine 30,000 Selveierbønder, med Fæstebaandet til Betyggelse, saa vilde det dog hverken gavne eller sikkre Riget, naar de til Jævnshold var feige eller dog uoplyste og smaalg egennyttige, thi baade vilde de da snart see til at faae Fæstebaandet løst, som noget, der trykkede Priserne paa deres Eiendom, og de vilde i det hele være ufølsomme og blinde for Fædermelandets Tarv og fælles Bedste...

여기서 우리는 그룬트비의 핵심적 사상, 즉 근대적 사회체제의 도입만으로는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할 수 없고 군주제 하의 평민이 계몽(oplysning)을 통해서 진정한 국민(folk)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경제체제 문제에 적용된 예를 또다시 보게 된다. 소유와 관련한 경제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에게 공동체에 대해서 기여하려는 마음의 자세와 구체적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룬트비는 덴마크의 미래가 달린 이 계몽과 관련하여 농민계층이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밝힌다.

국민적 그리고 덴마크적 계몽이 일어나게 되면 이 문제에 있어서도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나는 확신하지만, 이 같은 덴마크인의 계몽이 제대로 일어나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그리고 덴마크인의 계몽이 과연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대부분 농민에게 달려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Grundtvig(1849), 9월 1일)⁵⁵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의 대다수가 농민이었던 상황에서는 계몽과 관련하여 농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언뜻 당연해 보이지만, 소수의 엘리트가 사회를 이끌고 있었고 이 글이 발표되기 불과 1년여 전에 있었던 입헌군주제로의 전환 역시 수도 코펜하겐에 있었던 소수의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한 시위에 의한 것이었음을 상기하면, 그룬트비가 농민계층을 국가적 계몽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계층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그룬트비는 심지어 이 논설의 말미에서 자영농민들 중 특히 최초의 집단이 그런 공동선 감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므로 당시 진행 중이던 1차 술레스비히 전쟁에 참전했다가 귀향하는 청년들에게 기득권층이 농지를 내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스스로도 이 제안이 현실성이 크지는 않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안을 하는 까닭은 덴마크 내에서도 계급 간 갈등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절박성과 더불어, 덴마크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참전한 청년들이 함께 전쟁을 수행한 경험을 통해서 덴마크 공동체에 대한 소속의식, 애국심, 인내심, 그리고 상부협력(相扶協力)의 중요성을 발견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룬트비가 창출하고자 했던 자영농의 '계몽'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실제로 이후에 덴마크 사회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던 농민들에 대한 국민교육, 시민교육,

55) og skjøndt jeg er vis paa, at en folkelig altsaa en dansk Oplysning, naar den kommer igang, vil ogsaa i dette Stykke gjøre Underværker, saa maa jeg dog indrømme, at baade kan der skee ubodelig Skade, før den Danske Oplysning kommer ret i Gang, og deels vil det for en stor Deel beroe paa vore Gaardmænd, om og naar og hvorledes den skal komme i Gang.

직업교육은 상당부분 그룬트비 사상의 영향을 받은 운동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3. “삶의 기억”에서 “덴마크인”으로의 발전

이상에서 본 것처럼 그룬트비의 경제사상은 “덴마크인”에 실린 논설에서 그 이전의 “삶의 기억”에 보여주었던 것보다 더욱 발전하였다. “삶의 기억”에서는 영국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발전의 동력을 ‘이익추구에 입각한 노동’와 ‘자유’에서 찾았지만, 그러한 체계가 가져오는 빈곤확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영국의 정치체제가 그것을 해결하기에 무력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에 그치고 있었다. “덴마크인”에서는 그룬트비는 경제적 번영의 조건과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문제점의 해결과 관련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사고(思考)를 보여준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소유권 존중과 영업의 자유보장이라는 국가의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재분배 정책 배격, 규제축소와 조세부담 경감 등의 처방까지 제시한다. 그러나 그는 영업의 자유보장이 대자본이 중간층의 삶을 파괴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중간층이 사회의 대부분으로 존재하는 경제상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일정 정도 규제함으로써 자영농민층을 두텁게 육성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객관적 조건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즉각적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주체들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계몽’ 사상가로서의 그의 면모가 분명히 나타난다.

이처럼 “덴마크인”에서 그룬트비의 경제사상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이 되고, 특히 소유권을 존중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두터운 자영농민 계층 창출을 위해서는 그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두자는 입장을 취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로, 두 문헌의 성격에 차이가 있다. “삶의 기억”은 ‘인문학자’로서 이미 명망을 쌓아놓은 그룬트비가 그 시점에서 최근 50년 유럽 주요국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덴마크의 장점을 강조하는 ‘역사고찰’적 측면이 강한 강연이었던 반면, “덴마크인”은 1848년 3월 혁명 후 슬레쉬비히 전쟁으로 정국이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신인(新人) ‘현실정치인’이 된 그룬트비가 주간지의 형태로 구체적인 정치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정치발언’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두 문헌의 배경이 된 정치적 상황에 차이가 있다. “삶의 기억” 강연이 행해지던 1831년 시점은 적어도 그룬트비가 보기에는 절대왕정 체제인 덴마크의 ‘행운’이 두드러져 보이는 시점이었다. 강연 초기의 중요한 고찰 대상이었던 프랑스가 1789년 대혁명 이후, 공포정치, 나폴레옹 제정, 왕정복고, 1830년 7월 혁명의 좌절 등을 겪으며 한 세대 이상에 걸쳐 정치, 경제체제가 격동과 혼란을

겪은 것과 달리 덴마크에서는 절대왕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영국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더불어 빈부 간의 격차가 이미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었음에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체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에 비해서 덴마크는 정치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이미 ‘위로부터’의 농업개혁을 어느 정도 수행해 낸 상태였고 의회는 아니지만 민의(民意) 청취기구도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그룬트비는 영국의 경제적 발전을 찬탄하면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덴마크의 ‘안정된’ 정치체제를 부각시키는 데 만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덴마크인”은 1848년 덴마크에서도 3월 혁명을 통해서 입헌군주제로의 전환이 결정되었으나 헌법제정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 중인 유동적 상황이었으며,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지는 않아서 공업부문의 노사 갈등 문제는 아직 부각되지 않았지만 농촌지역에서 계급 간의 갈등이 그룬트비가 보기에 현재형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나의 책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여러 해 동안 농민과 장원주들 사이의 위험한 갈등을 예언해왔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제 그것이 당도했다(Grundtvig(1849), 9월 1일)⁵⁶.

무엇보다도 1차 슐레스비히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였으므로 왕국의 유지 자체가 의문시되는 위기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룬트비로 하여금 헌법의 틀 속에서도 왕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다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프랑스의 1848년 2월 혁명정부가 추진했던 중심정책이었던 국립작업장의 실패는 그룬트비로 하여금 무조건적 형평화를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비현실성과 소유권 존중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룬트비가 찾은 자영농체제의 확립이라는 방안은 오늘날의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소득 재분배를 통한 형평화’ 또는 ‘시장 소득분배 형평화’보다 논리적으로 선행하고 보다 근본적 효과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보유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가 이러한 자영농 체계의 육성에 주목하게 된 까닭은 농업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산업이었다는 경제적 상황과 더불어, 자영농 체계 육성의 제도적 가능성을 열어놓은 농업개혁이 그가 덴마크의 축복이라고 보았던 왕정시대의 중요한 업적이었던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6) Hvem der kiender mine Bøger, veed, at jeg i mange Aar har forudset den farlige Spænding mellem Bønder og Herremænd, som nu er kommet

VI. 요약과 결론

이상에서 근대 덴마크 사회의 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한 그룬트비의 사상영역 중 경제분야에 대한 그의 사고체계를 그의 중요저작인 “삶의 기억(1838)”, 그리고 “덴마크인(1848, 1849)”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문헌은 그의 경제사상에 관심을 가진 덴마크의 그룬트비 연구자들이 이미 주목한 저작들이지만, 이 논문은 특히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들을 검토하였다.

첫째, 위에 언급한 두 문헌 사이에서 그룬트비의 경제사상의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피려고 하였다. 그는 “삶의 기억”에서는 영국 경제발전의 동력을 ‘이익추구에 입각한 일’과 ‘자유’에서 찾았지만, 그러한 체계가 가져오는 빈곤 확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영국의 정치체제가 그것을 해결하기에 무력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에 그치고 있었다. 반면, “덴마크인”에서는 경제적 번영의 조건으로 ‘자유’에서 더 나아가 ‘소유권 존중’과 ‘영업의 자유보장’이라는 국가의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구체화한 경제정책까지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러면서도 중간층이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지나치게 부자인 사람은 몇 명 되지 않고, 지나치게 가난한 사람은 더욱 몇 명 되지 않는’ 경제상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일정 정도 규제함으로써 자영농민층을 두텁게 육성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발전하고 있다.

둘째, 두 문헌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저작의 성격과 시대적 배경에서 찾고자 하였다. 두 저작 중 전자는 인문학적 ‘역사고찰’의 성격을 갖고 있고 후자는 현실 상황 속에서의 ‘정치 발언’의 성격이 강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보다 근본적 이유는 저작의 배경이 된 구체적 상황이 전자의 경우는 덴마크 절대왕정의 안정성이 두드러져 보이는 시기였던 반면, 후자의 경우는 덴마크가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시기였다는 데에 있다. 즉 “덴마크인”은 1848년 3월 혁명을 통해서 덴마크에서 입헌군주제로의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내적으로는 헌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러 쟁점이 분출되는 유동적인 정국이었고 외적으로는 1차 슐레스비히 전쟁으로 인하여 왕국의 유지 자체가 의문시되는 위기 상황이었다. 또한 그룬트비가 보기에 농촌에서 계급 갈등이 현재화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그룬트비는 덴마크의 내적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그룬트비가 경제적 비전으로 제시한 중간층이 두터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의 내용과 그 사상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그는 당시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평생 임차농(보유농)을 자영농(Selveier)으로 전환하여 3만~4만 개의 자영농장을 창출하고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장원주를 포함한 농장소유자들의 임대료 수준, 임대 기간, 매각 대상 등에 대해서 규제를 가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바탕에는 토지를 개인의 완전한 소유권이 미칠 수 없는 특

별한 대상으로, 즉 국민전체만이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일종의 토지‘공유’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넷째, 그룬트비의 사상체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계몽’에 대한 사상이 경제문제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소유권 존중, 영업자유, 자영농 육성을 위한 일정한 소유권 행사 제한이라는 정책적 틀이 갖추어지고, 그 결과 중간층이 두터워지더라도 경제주체들에게 자신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공동체의 선을 인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품성이 없다면 그러한 제도들이 작동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그룬트비의 경제사상이 현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간단히 언급해 둔다.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그의 사상은 18 및 19세기에 덴마크의 구체적 역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으므로 그의 경제적 처방으로부터 오늘날 경제정책에 대한 직접적 함의를 끌어내는 것은 무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경제문제에 대해서 그의 사고체계를 형성해 간 방식에는 현대 경제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참고할 바가 적지 않다.

첫째, 특정한 경제이념이나 모범국가에 현실 경제문제에 대한 처방이 모두 담겨 있다고 보지 않으며 그것이 주는 함의를 자국이 처한 구체적 경제적 상황 속에서 평가하려는 노력이다. 그룬트비는 ‘삶의 추억’에서 이익추구와 자유를 기반으로 한 영국경제체제가 가져다주는 번영을 찬탄했고 ‘덴마크인’에서는 소유와 영업자유를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자유주의적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체제와 사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인식하면서 덴마크의 역사적 조건(특히 대공장 주도권의 미확립과 농업개혁의 성과)에 맞는 경제의 비전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오늘날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자유주의와 영미식 자본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와 독일식 또는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이념상으로 상정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룬트비가 보여준 사상적 노력은 이러한 쓸림을 경계하고 우리가 처한 역사와 현실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고 그에 입각한 해법을 모색하라는 교훈을 준다.

둘째,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소득 재분배 기구’나 ‘시장소득 보장’보다 소득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는 자산의 형평화를 추구하는 관점이다. 그룬트비는 ‘삶의 기억’에서 재분배 기구 및 시장에서의 형평화(무조건적 고용과 동등임금 지불)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면서 대공장에 의한 중간층 지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었고, ‘덴마크인’에서는 이 입장을 발전시켜서 광범위한 자영농 계층 창출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의 이러한 중농사상(重農思想)을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으나, 2차 대전 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의 출발점에 농지개혁이나 토지개혁(조성호(1983) 참조) 등과 같은 자산 균등화를 위한 체제개혁이 있었음은 그룬트비 사상이 현재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자’들의 사고체계에서도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재분배보다는 엄격한 반독점 정책을 통한 경쟁 유지가 강조되었다. 특히 그 학파의 일원인 뮐러-아르막(Müller-Armack)은 더 나아가 자산형성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주택공급, 중소기업 육성, 정신적 자본형성을 위한 교육정책까지도 국가의 임무 영역으로 보기도 하였다(Wörsdörfer, 2011: 29).⁵⁷ 이상을 볼 때 중간층의 보존과 자영농민 육성을 강조한 그룬트비의 사상은 오늘날 경제와 관련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을 논함에 있어서 복지 및 조세부담 수준을 둘러싼 논쟁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소득창출 기반 균등화라는 시각을 잊지 말아야 함을 시사해 준다.

셋째, 경제제도 이외에 경제주체들의 공동선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복돋우는 노력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재산권과 관련한 제도, 조세, 각종 규제, 자영농 계층의 광범위한 창출 등의 경제정책들은 사회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룬트비는 이러한 제도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경제주체들이 개인, 민족, 인류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고 공동선을 추구하게 되는, 비유컨대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그가 ‘삶의 기억’에서 보인 영국 비판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불비(不備)를 비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덴마크인’에서 제시한 국민 각 계층 특히 자영농민에 대한 ‘계몽’의 비전은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계층 및 지역 양극화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개별주체들의 사익추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 지혜롭게 고안한 경제정책이 중요할 뿐 아니라, 경제주체들 간의 신뢰와 협력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그룬트비의 사상과 그룬트비주의자들의 실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57) 이 입장을 모든 질서자유주의자들이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참 고 문 헌

- 김기환 (2020). **사회적 기능 중심 사회교육사상가의 사회교육 실천원리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 [Kim, K. H. (2020). *A Comparative Study on the Educational Principles of Social Function-Centered Social Educational Thinkers*. Doctoral Dissertation. Dong-Eui University, Busan, Korea.]
- 김성호 편역 (1983). 대만의 토지개혁. **해외농업자료**. 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Kim, S. H. (Ed.) (1983). The Land Reform of Taiwan. *Information on Agriculture in Foreign Countries*, vol. 33,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김종현 (2007). **경제사**. 신전정증보판. 서울: 경문사
- [Kim, J. H. (2007). *Economic History*. Seoul: Kyungmoonsa]
- 김택현 (2008). **차티스트 운동, 좌절된 혁명에서 실현된 역사로**. 서울: 책세상
- [Kim, T. H. (2008). Chartist Movement, from a Failed Revolution to a Realized History. Seoul: Chaeksesang]
- 노명식 (2011).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 코뮌까지, 1789~1871**. 서울: 책과함께.
- [Rho, M. S. (2011). From the French Revolution to the Paris Commune, 1789~1871. Seoul: WithBook.]
- 박지향 (2007). **영국사, 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서울: 까치
- [Park, J. H. (2007). *A History of Britain: Dramas of Conservatism and Reforms*. Seoul: Kachibooks.]
- 송순재 (2020). 근대기독교 민족운동에서 기독교와 민족 간의 관계 해명 —함석헌과 그룬트비(N.F.S. Grundtvig)의 관점에 비추어. **현상과 인식**, 44(2), 143, 51-74.
- [Song, S. J. (2020). The Investigation on the Relations between Christianity and Nation in the Modern Christian National Independent Movement —In the Light of the Thoughts of Seok-Heon Ham and N.F.S. Grundtvig. *Phenomena and Cognition*, 4(2), 143, 51-74.]
- 오연호 (2014).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서울: 오마이북.
- [Oh, Y. H. (2014). *Can we also become happy?* Seoul: Oh my book]
- 정해진(2015). **그룬트비의 평민교육사상**.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Chung, H. J. (2015). *Grundtvig's Idea on 'Folkelig' Education*.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Grundtvig, N. F. S. (1808). *Nordens Mythologi*, København, Hofboghandler I. H. Schuboths Forlag.
- Grundtvig, N. F. S. (1825). *Kierkens Gienmaele*, Kjøbenhavn, den Wahlske Boghandlings Forlag.
- Grundtvig, N. F. S. (1827). *Om Religions-Frihed*, Theologisk Maanedsskrift, Februar og Marts.
- Grundtvig, N. F. S. (1831). *Politiske Betragtninger med Blik paa Danmark og Holsteen*. Kiøbenhavn, den Wahlske Boghandels Forlag hos C. Græbe & Søn.
- Grundtvig, N. F. S. (1832). *Nordens Mythologi eller Sindbilled-Sprog historisk-poetisk udviklet og oplyst*. Kiøbenhavn, J. H. Schuboths Boghandling.
- Grundtvig, N. F. S. (1837). *Sang-vaerk til den danske Kirke*, Kjøbenhavn, den Wahlske Boghandels Forlag.
- Grundtvig, N. F. S. (1838a). *Mands Minde: 1788-1838, Foredrag over det sidste halve Aarhundredes Historie*, holdte 1838 af Nik. Fred. Sev. Grundtvig. Efter Forfatterens Haandskrift for første Gang udgivet af Svend Grundtvig, Bianco Lunos Bogtrykkeri. Kjøbenhavn. Karl Schönbergs Forlag. 1877.
- Grundtvig, N. F. S. (1838b). *Skolen for Livet og Akademiet i Soer borgerlig betragtet*, Kjøbenhavn, den Wahlske Boghandel.
- Grundtvig N. F. S. (1845). *Danske Ordsprog og Mundheld*, Kjøbenhavn, Universitetsbohandler C.A.Reitzel.
- Grundtvig, N. F. S. (1848, 1849). *Danskeren, et Ugeblad, Kjøbenhavn*, I Commission hos Bog- og Papiirhandler F. H. Eibe.
- Allchin, A. M. (2015). N.F.S. *Gurndtvig. An Introduction to his Life and Work*. 2nd ed. A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 Allchin, A. M., Bradley, S. A. J., Hjelm, N. A. & Schjørring, J. H. (Ed.) (2000). *Grundtvig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A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 Allchin, A. M., Jasper, D., Schjørring, J. H. & Stevenson, K. (Ed.) (1994). *Heritage and Prophecy: Grundtvig and the English-Speaking World*. Norwich, Norfolk, The Canterbury Press Norwich.
- Baack, L. (1977). *Agrarian Reform in Eighteenth-Century Denmark*. Papers from the University Studies Series.
- Broadbridge, E. & Korsgaard, O. (Ed.) (2019). *The Common Good: N. F. S. Grundtvig as Politician and Contemporary Historian*. A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
- Broadbridge, E. Warren, C. & Jonas, U. (Ed.) (2011). *The School for Life: N. F. S. Grundtvig on Education for the People*. A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 Hall, J. A., Korsgaard, O. & Pedersen, O.K. (Ed.) (2015). *Buidling the Nation, N. F. S. Gurndvig and Danish National Identity*. Montreal & Kingston, Ithaca,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Jespersen, K. (2004). *A History of Denmark. translated by Hill, I.* Hampshire: Palgrave.
- Korssgaard, O. (2019). Revolution or Evolution. in Broadbridge, E. & Korsgaard, O. (Ed.) (2019). *The Common Good: N. F. S. Grundtvig as Politician and Contemporary Historian*. A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 Lampe, M. & Sharp, P. (2018). *A Land of Milk & Butter: How Elites Created the Modern Danish Dair Industr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chelson, W. (1969). From Religious Movement to Economic Change: The Grundtvigian Case. in Denmark, *Journal of Social History*. Summer, 1969, Vol. 2, No. 4, 283- 301, Oxford University Press.
- Vind, O. (2015). "The Gordian Knot": Grundtvig and British Liberalism. in Hall, J. A., Korsgaard, O. & Pedersen, O. K. (Ed.) (2015). *Buidling the Nation, N.F.S. Gurndvig and Danish National Identity*. Montreal & Kingston, Ithaca,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Williamson, J. G. (1980). Earnings Inequality in Nineteenth-Century Britain.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Sep., 1980, Vol. 40, No. 3.
- Wörsdörfer, M. (2011). *Die normativen und wirtschaftsethischen Grundlagen des Ordoliberalismus*. Inaugural-Dissertation. Johann Wolfgang Goethe-Universität Frankfurt am Main.
- Wählin, V. (1989). Grundtvigs økonomiske tænkning, Grundtvig Studier. Årg. 41 Nr. 1 (1989), 246-303.
- Wählin, V. (1994). Denmark, Slesvig-Holstein and Grundtvig in the 19th Century. in Allchin. A. M., Jasper, D., Schjørring, J. H. & Stevenson, K. (Ed.) (1994). *Heritage and Prophecy: Grundtvig and the English-Speaking World*. Norwich, Norfolk, The Canterbury Press Norwich.
- Østergård, U. (2015). The Nation as Event: The Dissolution of the Oldenburg Monarchy and Grundtvig's Nationalism. in Hall, J. A., Korsgaard, O. & Pedersen, O.K. (Ed.) (2015). *Buidling the Nation, N.F.S. Gurndvig and Danish National Identity*. Montreal & Kingston, Ithaca,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그룬트비의 경제사상: 그 발전과정과 배경

The development and backgrounds of Economic thoughts of N.F.S. Grundtvig

이명헌 (인천대학교)

국문초록

이 논문은 그룬트비의 사상영역 중 경제분야에 대한 그의 사고체계를 그의 중요저작인 “삶의 기억(1838)”, 그리고 “덴마크인(1848, 1849)”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는 “삶의 기억”에서는 영국 경제발전의 동력을 ‘이익추구에 입각한 일’과 ‘자유’에서 찾았다. 그의 경제적 사상은 “덴마크인”에서는 더욱 심화되고 체계화되어 경제적 번영의 조건으로 ‘소유권 존중’과 ‘영업의 자유보장’을 강조하고 그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중간층이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임대료, 임대기간, 매각 대상 등과 관련하여 일정 정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사고의 진전을 불러일으킨 요인은 1848년 이후 입헌 과정과 1차 쉐레스비히 전쟁이라는 대내외적 긴장된 정치상황과 농촌에서의 계급갈등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토지소유권 행사에 대해서 제약을 부과하는 주장의 바탕에는 일종의 토지공유사상이 기초가 되고 있었으며, 그가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경제주체들을 공동선을 인식하고 추구하도록 하는 계몽을 중시했다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주제어: 그룬트비, 경제체제, 자유, 소유, 농민계층